



자랑스러운 관악대상 수상자와 함께. 孫一根상임부회장, 林光洙회장, 金빛내리(영광부문) 동문 모녀, 金哲洙(참여부문) 동문 부부, 權永吳(협력부문) 동문 부부, 吳然天총장.

모교와 동창회를 빛낸 얼굴들!

'13정기총회 성황
1천여 동문 참석



林光洙회장은 개회사에서 “서울대인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4면>

관악출추

종합병원은 21C 창조산업과 수출산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병원은 2020년까지 심장질환, 뇌질환, 장기이식, 암 치료의 4대 분야의 독창적 신기술 20개를 개발해 현재 세계 일류 선진국 병원들을 모두 크게 앞서는 초일류병원이 되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수많은 나라에서 병원을 설립, 운영해 줄 것을 삼성병원에 요청하고 있다. 삼성병원은 이미 21C 수출산업의 자리에 올랐다.

텍사스대 MD앤더슨 암센터 金義信(중

신교수는 ‘서울대병원 등 한국의 암치료 환경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고 외과 계통은 세계 최고’라고 한다. 현재 서울대 초빙교수인데, 두 차례나 미국 최고 의사로 선정된 바 있다. 앤더슨 암센터는 암치료 분야 세계 제일이다. 새 정부가 ‘근혜노

믹스’를 이끌 미래창조과학부 창설을 계기로 우선 서울대병원부터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피터 드러커는 ‘건강관리’는 교육과 더불어 지식사회의 2대 지식산업이고 성장

산업’이라고 했다. 서울대병원이 우리 스마트폰과 TV처럼 세계 최고가 되면 한국인은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린다. 생명 관련 기술 및 산업도 크게 발전하고, 치료차 한국에 오는 외국 지도자나 부자들도 많아지게 된다. 경제외교도

많은 도움을 받는다. 좋은 병원서비스는 외국 부자소비자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므로 그 부가가치는 수출품보다 월등히 높다. 건강의료서비스는 IT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IT강국 한국이 경쟁우위

가 높은 분야이다.

2030년에는 세계 인구의 반이 환자가 된다는 전망도 있다. 세계적 노령화, 후진국의 도시화, 환경파괴, 매년 10억이 넘는 세계의 인구이동, 이상기후, 스트레스 증가 등에 따른 각종 질병, 변종 세균, 새로운 유행성 질환 등이 그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서울대병원에 대한 투자는 절실하다. 그 투자효율은 도로, 아파트 등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인적자원 밖에 없는 나라, 한국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서울대병원은 미래창조의 중심이 돼야 한다. (宋丙洛 모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본보 논설위원)

서울대병원, 미래창조의 중심

느리나무광장

어느 휴일 오전 케이블TV 채널을 돌리다 미국 NBC의 'Minute to win it'을 봤다. 1분 안에 주어진 과제를 해내면 상금이 올라가고, 다음 단계에 도전할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쌍둥이 형제가 교대로 격려해가며 과제를 풀었다.

그 형제도 게임에서 몇 번 실패했다. 그러나 찡그리지 않았다. 억울해하지도, 남을 탓하지도 않았다. 인터뷰에서도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거나, 그런 환경을 만든 사회를 원망하지 않았다.

동생은 인터뷰에서 “돈이 없어 아직 장가를 못 갔다”고 했다. 상금을 받으면 10년 동안 사귀 여자 친구와 결혼하겠다고 했다. 영화배우처럼 잘 생기고, 지극히 착해 보였다. 저런 사람이 왜 가난하고 결혼을 못했을까? 시청하던 필자가 오히려 ‘미국 사회도 고르지 않구나’ 생각했다.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나는 어땠었나. 길을 가다 다른 차가 끼어들기만 해도 짜증을 내지는 않았나. 내가 한 말을 일론 못 알아듣는 가족에게 화를 내지는 않았던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증오’가 넘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생활환경은 많이 좋아졌는데 마음은 훨씬 각박해졌다. 무언에 쫓기는지 초조하고, 눈만 돌리면 금방 낭패를 볼 것처럼 불안해한다. 이런 불

안의 속도감은 사이버 세상에서 특히 심하다. 나는 트위터를 잘 하지 않는다. 시대의 흐름을 놓칠까 걱정해 가끔 들여다볼 뿐이다. 그때마다 실망하고 나오게 된다. 이수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칼질을 해대는지.

댓글은 단문이다. 단칼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댓글의 홍수 속에선 과장하고 딱지 붙이고 알록달록 칠해야 겨우 눈에 띈다. 문법을 지키다가는 손님을 다 놓친다. ‘증오’라는 양념을 듬뿍 치면 조화가 짝딱 올라간다. 여유와 사색과 인내, 예의...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무엇이 먼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모든 책임을 사이버 세상에 떠넘길 수도 없다. 하지만 온라인의 속도가 오프라인마저 오염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치인은 표를 구하는데 이용하고, 지식인은 논쟁 상대를 공격하는데 끌어들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즉위미사 강론은 신자가 아닌 내 가슴에도 울렸다.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증오와 시기와 자만이라는 ‘과괴의 조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광속으로 달리다 잃어버린 것

金 鎮 國
중앙일보 논설주간
본보 논설위원



관악시단

열쇠공

金 貞 姬(약학57-61)시인

전깃줄 철사들이 무지개처럼 늘어진 구멍가게 안에서
반쯤 때머리진 사내 하나
잇몸뿐인 열쇠에 이빨을 심는다.
쪼그린 몸 위로 쇠 꺾이는 소리가 쌓이고
조금씩 흔들릴 때마다
벽에 걸린 시간도 못에 걸린 열쇠꾸러미도
부르르 뒹군다.
햇살이 기웃거리다 물러선 가게 안
형광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살찌우고
이빨 한 개로 아무 것도 깨물 수 없는 열쇠에게
빠드렁니 송곳니도 연달아 씹어준다.
툼날처럼 이빨이 들쭉날쭉하게 자란 열쇠를
끼우고 맞추고 돌려보는 동안
핏줄이 기어가는 그의 손은
지나간 시간을 더듬는다.
열쇠가 완성될 때쯤
그의 어깨는 한쪽으로 슬그머니 기울고
열쇠가 된 그는
자꾸 헛돌고

동문칼럼

역사는 현실을 이해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발판이자 미래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횡불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기록관은 모교의 발자취와 업적을 보존하기 위해 2001년 9월 설립된 이래 모교의 역사를 담고 있는 다양한 대학사료와 기록물들을 꾸준히 수집하고 관리해왔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모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생과 교직원, 동문을 아우르는 서울대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북돋우며, 모교의 역사를 길이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동안 기록관은 모교 역사에 대한 학내외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수차례의 대학역사전을 개최했고, 홈페이지 구축과 대학사료 DB사업 등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교가 스스로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설전시관을

못, 인공 언덕을 조성해 캠퍼스 내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연세대는 광혜원과 백주년기념관 등에 연세사료관 및 역사홍보실과 같은 상설전시관을 마련해 신입생과 동문, 방문객들을 맞고 있으며, 고려대는 백주년기념관 내에 1백20평 규모의 백년사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록관 또는 전시관은 단순히 학교 홍보의 수단에 그치는 곳이 아닙니다. ‘서울대 역사기념관’은 청춘과 학문을 모교와 함께했던 많은 동문들의 열정과 고뇌, 그들의 활동과 문화, 나아가 국가와 인류사회에 남긴 업적과 공헌을 되새기고 기리기 위한 장이며, 동시에 현재 서울대의 발전상을 확인하고 미래의 비전을 발견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柳 弘 林
(정치80-84)
모교 기록관장
정치외교학부 교수

또한 ‘서울대 역사기념관’은 후속세대들에게 모교와 관련된 생생한 역사체험의 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질곡과 파란 속에서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서울대인의 기상과 지혜를 느끼고, 오늘날까지 계승돼온 모

서울대의 역사를 모아 미래를 밝혀야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총동창회와 대학은 모교의 역사를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한 ‘서울대 역사기념관(가칭)’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우수 대학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한 기록관 및 전시관을 일찍이 건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하버드대는 1912년에 기록관을 설립한 이후 다양한 역사기록물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북경대는 중국 전통 건축양식을 기본으로 주변에 정원, 연

교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역사기념관은 서울대와 서울대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후학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모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서울대인의 삶 속에서 교훈을 터득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모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공간이 될 역사기념관의 건립과 자료 수집에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孔 大 植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416호 (장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5)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國,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洛,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侑日,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金昌均, 李相起, 鄭然旭, 蔡耕玉,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朴新載, 林香默, 金貞美

林光洙회장 개회사 <요지>

冠岳大賞은 총동창회의 지표인 ‘참여·협력·영광’에 걸맞게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고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분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오늘 제15회 冠岳大賞을 수상하시는 모교 법학부 金哲洙명예교수님, 생명과학부 金빛내리 중견석좌교수님, 그리고 덕홍상사 權永昊회장님께 33만 서울대인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동창회는 작년 10월 25일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을 동문과 일반에 공개하는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베리타스홀은 모교와 동창회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영구 전시된 서울대인 명예의 전당이자 미술전, 음악회, 출판기념회 등 각종 행사 개최가 가능한 컨벤션 홀로서 동문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25억9천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모교와 70억원의 장학연구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모교에 세계 초일류 학과와 학부를 만드는 ‘교육혁신 프로그램’과 모교의 우수한 강의를 인터넷에 무상 공개함으로써 모교가 국민속으로 깊숙이 다가가는 평생교육과 대학 강의 수준의 비약적인 향상을 돕는 ‘교수 강의 동영상 강좌’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총동창회는 2년 후에 개학 120주년을 맞는 모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리기 위한 ‘서울대 120년사’ 편찬사업과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1백억원 규모의 역사기념관을 건립해 모교에 기증하는 ‘서울대 역사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총동창회는 모교의 세계 10위권 명문대학 진입과 동문사회의 단결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동문 여러분께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吳然天총장 축사 <요지>

오늘은 서울대의 과거·현재·미래를 확인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권국가를 확립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해 세계중심국가의 반열에 도달한데에는 우리 동문들이 그 중심에 있었기에 오늘의 서울대가 있고, 서울대의 미래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적 구심점인 서울대는 많은 변화와 도전 속에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대학 자율이라는 큰 틀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제도 정비와 개선의 노력은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적 지식공동체’로 거듭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과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대학은 시대가 요구하는, 더 나아가 미래를 선도하는 보편적 가치를 정립하고 국가와 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지식과

지혜의 기지입니다. 서울대가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지적공동체의 의무감과 책임의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 교수, 직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은 부단한 자기성찰, 자기혁신의 노력으로 임하겠습니다. 동문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비전 공유에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와 더불어 이념적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대정신은 ‘화합, 상호존중,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대학과 지식인 사회는 대한민국의 지적 구심점의 역할과 함께 새로운 시대정신을 뒷받침할 가치형성이라는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서울대 구성원 모두는 서울대학교가 우리사회의 변명과 행복에 기여하는 창조적 지적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기총회 행사장을 가득 메운 1천여 동문이 프로젝트 영상을 통해 2012년도 결산·감사 등을 보고 받고 있다.

“모교 120년사·역사기념관 건립 추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희망의 등불돼야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각계 동문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회 정기총회 겸 제15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冠岳大賞 수상자로 참여부문에 모교 법학부 金哲洙(법학52-56)명예교수, 협력부문에 덕홍상사 權永昊(약학55-59)회장, 영광부문에 모교 생명과학부 金빛내리(미생물88-92)중견석좌교수를 선정·시상했다. <공적 및 수상소감 4면 참조>

KBS 鄭多恩(언론정보03-08)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총동창회는 장학빌딩의 연간 임대수익 40억원과 동문 여러분의 한결 같은 사랑에 힘입어 모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25억9천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모교와 70억원의 장학연구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서울대 120년사’ 편찬사업과 ‘서울대 역사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사회사업가 헐렌 켈러는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동창회 2012년 결산을 심의·의결하는 모습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고 말했다”며 “경제 침체와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서울대인은 다시 한 번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펼쳐 일어나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

다. <개회사 요지 참조>

모교 吳然天총장은 축사에서 “모교가 중심이 돼 경제적 강자, 사회적 강자, 그리고 지적 강자로서 약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사회가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을 통해 국가 발전의 또다른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동문 여

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양정드린다”고 강조했다. <축사 요지 참조>

孫一根상임부회장은 수상자 선정 경과보고에서 “冠岳大賞은 모교 발전 및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도 크게 공헌해 서울대인의 명예를 드높였거나



모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서울대 트럼بون 앙상블’팀의 축하공연

비동문일지라도 모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 또는 단체에게 시상하는 동창회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밝힌 뒤 “1999년 제정된 이래 15회째를 맞이하면서 그 역사만큼 위상과 품격을 높여나가기 위해 운영위원들의 노력과 고민 또한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총 9명의 후보자 모두 대상을 수상할만한 훌륭한 분들로서 우월장단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컸으나, 받고 싶은 상보다 주고 싶은 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부에서는 본회 2012년도 결산보고와 朴英俊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고, 동문들의 만장일치로 안건이 통과됐다.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모교 음악대학 金泳律학장이 이끈 ‘서울대 트럼بون 앙상블’팀이 ‘Overture from Water Music’, ‘A Gospel Voyage’, ‘Wien Bleibt Wien’, ‘Gospel Time’을 연주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민찬에 앞서 본회 金在淳명예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오늘 冠岳大賞을 받으신 동문들과 그분들을 천거해주신 동문들, 그리고 총동창회를 원만하게 이끌어주시는 林光洙회장을 비롯한 선후배 여러분의 노고에 화답하는 건배를 제의한다”며 “사랑하는 조국과 모교 앞에 무한책임감을 다짐하면서 축배를 올리자”고 말한 뒤 ‘위해서!’를 힘차게 외쳤다.

또 李吉女(의학51-57 가천대 총장)부회장은 “모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건배사를 준비하면서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모바일’이라는 구호를 새롭게 만들었다”며 “이는 ‘모두가, 바라는 대로, 일등 서울대 만세’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吉女부회장의 선창에 따라 ‘모바일!’을 힘차게 외친 동문들은 서로의 잔을 부딪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머그컵을 비롯해 신라문화선양회 金許男(행정49-52)이사장과 고궁 朴秉南(AMPFRI 4기)대표가 각각 협찬한 도서 3권과 식사권 2매를 기념품으로 받았다. 또 일동후디스 李金器(약학55-59 본회 부회장)회장과 모교 발전기금에서 각각 유제품과 대학 배지를 협찬했다. <香>

冠岳大賞 수상자 공적 및 수상소감

참여부문 모교 법학부 金哲洙 명예교수

▲공적 : 1952년 법대 법학과에 입학해 1956년 졸업했으며 1971년 모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모교 법과대학에서 전임교수로 1962년부터 1998년까지 37년간, 명예교수로 15년간 헌법학 강의를 담당하며 후학 양성에 전념해 왔다.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최고 권위자로서 한국공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한국 법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국제헌법학회 부회장, 국제법 및 사회철학회 집행위원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한국 법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했다.

또 동창회보 창간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본회에 장학빌딩 건립기금 1천만원과 법과대학 시설기금 8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기여했다.

▲수상소감 : 金동문은 “훌륭한 여러 선배들이 계시는 가운데 동창회가 주관하는 관악대상의 참여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모교에서 37년간 교수로, 또한 동창회 논설위원으로서 30여 년 활동한 것에 대해 특별히 상을 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동창회는 그동안 모교 법인화를 지지하고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을 펼치는 등 모교 발전을 위해 앞장섰다”며 “이는 林光洙 회장을 비롯한 동창회의 노력이 있기



에 가능했고 우리 논설위원들도 그 뜻을 받들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모교 발전에 이바지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를 빌려 역대 동창회장님들과 모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동문께 감사를 드린다”며 “모교가 있어야 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협력부문 덕홍상사 權永昊 회장

▲공적 : 1955년 약학대학 약학과에 입학해 1959년 졸업했다. 1966년 상능상사(주) 서울지점 근무를 시작으로 (주)해종산업 이사를 거쳐 1995년 덕홍상사를 설립해 현재까지 정도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동종산업 발전에 힘썼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본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를 맡아 동문간의 친목과 결속은 물론 동창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지난 1998년 IMF 시기에 모교 약학대학 실습동 증축비로 7억원을 기부했으며 본회에 출연한 장학빌딩 건립기금 10억원을 바탕으로 설립된 특지장학회를 통해 어

려운 모교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교육·장학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수상소감 : 權동문은 “林光洙 회장님은 지난 2002년 취임 이후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적극 참여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동창회를 통한 장학사업의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더욱 더 융성하고 빛나는 동창회가 되도록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모교 교수님들도 훌륭한 제자들을 배출하기 위해 후학 교육에 전념하는 것은 물론 끊임없는 연구와 학문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선도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교수님들



께도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모교는 1백8년이라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자부심으로 명실공히 세계 유수의 명문대학 반열에 올랐는데 이는 33만 동문들의 열정과 도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동문 모두가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앞장선다면 머지않아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것이라 확신하며 저 또한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영광부문 모교 생명과학부 金빛내리 교수

▲공적 : 1988년 자연과학대학 미생물학과에 입학해 1992년 졸업했으며 1994년 모교 대학원 석사학위, 1998년 영국 옥스퍼드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부터 모교 자연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문적 연구를 통해 세포 내 유전자 조절물질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MicroRNA의 생성 기전 및 유전자 조절 기능을 선도적으로 규명한 세계적인 연구자로서 기초 생물학 분야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 줄기세포 분화와 암 발생 억제에 중요한 let-7 MicroRNA의 생성 과정에 특이적으로 관여하는 TUT4 단백질과 LIN28 단백질의 작용기작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MicroRNA의 생성 및 기능을 활성화하는 물질들을 발굴해 줄기세포를 이용한 각종 연구에 응용하거나 항암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며 국위 선양에도 크게 기여했다.

▲수상소감 : 金동문은 “제가 여러모로 굉장히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특히 저를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준 가족과 연구 기회를 준 모교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01년 모교에 연구교수로 부임했을 당시 경력이 짧은 상황에서도 전임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는데, 이는 모교 구성원



들이 갖고 있는 배려와 관용의 정신, 또 자신감과 훌륭한 인적자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학생 시절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했고 현재도 정부 지원을 받아 연구를 하는 등 평생 편하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어 제가 받은 만큼 갚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본회 상임이사회·관악회 이사회

KFL·ABKI 특별과정 준회원 영입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벨뷰 스위트룸에서 본회 회장단, 재단법인 관악회 임원, 각 단과대학(원)·특별과정 및 지방지부 동창회장, 본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 제157차 상임이사회·관악회 제116차 이사회를 열고 동창회 예산과 관악회 결산을 심의 의결했다. <동창회·관악회 결산 6~7면 하단 참조>

동창회는 회비수입 11억4천7백만원을 포함해 총 21억2천4백만원을 수입으로 거뒀으며, 동창회보 및 친목 사업 등으로 20억3천1백만원을 지출해 총 9천3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지난해 1만2천5백명의 동문이 회비를 보내왔으며 회보는 매월 10만부를 발행하고 있다.

관악회는 장학빌딩 임대 현황 보고를 통해 명예의 전당을 제외한 전 층의 임대 계약이 완료돼 51억3천만원의 임대 수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장학빌딩 건립기부금 13억3천3백만원 등을 포함해 총 71억8백만원의 수입을 거

뒀으며, 회원관리비와 장학사업 등으로 69억3천60만원을 지출해 총 1억7천7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 장학사업으로는 장학금수여식을 통해 재학생 6백29명에게 17억8천만원, 장학연구지원사업비 6억7천2백만원, 교수 강의 동영상 제작비용 2억원, 신입생 도서 지원비 3천8백만원 등 총 27억4천7백만원을 지출했다.

2012년 말 현재 동창회 및 관악회는 1백94억원의 예치금(금융자산 부문)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동창회 회칙 제5조 2항(준회원은 전신을 포함한 각 대학(원) 중퇴한 동문 및 단기 연구교육과정을 수료한 분, 본회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본회의 상임이사회에서 인준한 특별과정을 수료한 분으로 한다)에 의거해 본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지도자과정(KFL)’과 중앙도서관 부설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ABKI)’ 수료자를 준회원으로 승인했다.



장학연구지원사업 자문회의

해외 강의동영상 선정 논의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22일 서울 도화동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에서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의 해외대학 강의동영상 활용방안 자문회의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모교 李基俊(화학공학57-61) 前총장을 비롯해 모교 발전기금 金炯周(전자계산78-82) 상임이사, 서강대 姜榮安국제인문학부장이 참석했으며, 본회 孔大植(기계공학56-60)·辛鉉雄(지리64-68) 부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자문

위원 중 전주대 高 健(응용물리67-74)총장 등 4명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1차 회의 이후 5명의 자문위원이 선정한 59개 강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들 중 추후 모교 교수 강의동영상 강좌 프로그램에 활용할 17개를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강의동영상에 자막 처리를 하는 방법과 타 대학 출신 자문위원을 초청해 다양한 고견을 수렴하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載>



어떤 할머니가 여고 동창회에 다녀왔다. 옛날 학창 시절을 회상하며 고가를 불러 보았다. 아무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데, 똑순이로 유명했던 반장 할머니가 역시 똑 부러지게 고가 1절을 끝까지 부르는 데 성공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할머니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할아버지에게 그 무용담을 들려 줬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흐뭇해하며 말했다. “그거 잘했구려, 어디 그 고가 나한테도 한번 들려 줘 보우.” 할머니는 잠시도 망설임 없이 자랑스런 고가를 다시 불렀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러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말했더라. “이상하다. 그거 우리 학교 고가 같은데...”

우스개 중에서도 나이 든 노인들이 등장하는 농담에는 으레 건강증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런 현상이다. 다만 걱정되는 건 그 건강증이 치매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심각하게 치매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기억력의 쇠퇴라고 할 수 있는 건강증과 치매는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이 들어 건강증이 심해지는 것은 좋지 않다. 기억력의 쇠퇴가 걱정된다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치매가 아닌 건강증 수준이라면 훈련으로 얼마든지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다.

기억력을 고수하라

△**걷기 운동**: 걷기 운동은 경추를 자극해 뇌 혈류를 활발하게 하므로 기억력 회복과 유지에 도움이 된다. 하루 한 번 이상 1시간 정도의 걷기를 생활화한다.

△**한두 잔의 와인**: 하루 1~2잔의 와인은 기억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뇌에서 기억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약간의 알코올에 의해 활성화돼 퇴화를 막을 수 있다. 레드와인의 향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뇌세포의 파괴를 막아 주기도 한다.

△**커피**: 프랑스 국립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신 사람은 기억력 저하 현상이 적게 나타났다고 한다. 커피의 카페인 성분은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고 뇌의 의식조절 장치에 영향을 미쳐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숙면**: 정신의학자 스틱 골드에 따르면 그날 습득한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6시간의 숙면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람의 두뇌는 그날 얻은 지식과 정보들을 잠자는 동안 정리해 저장한다. 제때 잠을 자지 않으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기억들이 망실되고 만다. 더구나 밤 12시부터는 뇌세포를 파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므로 그 전에 잠드는 것이 가장 좋다.

△**메모**: 사람의 뇌는 제대로 각인된 기억을 무제한 저장할 능력이 있지만, 한 번 보거나 듣고 지나치는 단기 기억의 저장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항상 손달을 곳에 메모지를 준비해 두고 약속이나 전화번호 같은 것은 바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독서**: 기억력 유지에는 화투나 바둑 같은 단순 게임보다 독서가 더 좋다. 여러 개의 스토리를 전후 맥락을 따져 가며 읽게 되므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반복하게 돼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건강박사 유태종의 9988 건강습관(리스컴刊)에서 —

재학생에 장학금 수여 음대동창회

음악대학동창회(회장 申秀貞)는 지난 3월 4일 서울 태평로1가 뉴서울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申美愛(성악69-73)·李鍾淑(성악69-73)부회장이 동창회에 기금을 전달해 큰 박

수를 받았다.

이어진 장학금 수여식에서 모교 음대 노찬진(성악4년)·장동인(작곡4년)·김상수(기악4년)·최윤경(기악4년)·이연진(국악2년)학생에게 각각 1백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2부 만찬에서 SBS 예술단 金正澤(기악69-74)단장이 피아노 연주와 노래를 선보였으며 모교 대학원 성악과 중창단이 축하를 불렀다.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사업별 현황 보고·추진계획 심의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11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메이플룸에서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동위원장인 모교 李基俊前총장, 任廷基기학부총장을 비롯해 본회 孔大植·辛鉉雄부회장, 시공미디어 郭德薰부회장, 한동대 崔道成부총장이 참석했으며 모교 평의원회 朴鍾根의장, 朴枝香중앙도서관장, 李在影학상처장, 林哲一교육부처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교육혁신 프로그램’

과 ‘교수 강의동영상 강좌 프로그램’ 등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사업별 현황과 추진 경과를 보고 받았으며 두 사업의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 심의했다.

지난해 선정돼 추진 중인 8개의 교육혁신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1차년도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총 3억원의 2차년도 사업비를 차등 지급 받게 된다.

또 4월 중에 지난해 선발되지 않은 8개 대학 학사과정 및 기초교육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모 및 선정해 총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수 강의동영상 강좌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사업 공모와 예비선정을 거쳐 13개 강좌를 최종 선정했으며, 11월부터 매월 개발지침 공유회를 개최하고 공개강의 개발을 위한 자료집 개발, 교수법 특강 등을 실시해 왔다.

올해에는 학부생 대상 전공 및 교양 강좌를 비롯해 외국인 교수의 영어 강의 공모를 통해 모교를 대표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내외 공개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또 3~6월 촬영 및 편집을 거쳐 9월경 서비스를 시작하고 국내 우수 대학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및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朴容昰회장, 沈英輔동문 부부, 申英秀동문 아들(申己澈동문) 부부

朴容昰회장 연임·함춘대상 시상

의대동창회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昰)는 지난 3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정기총

회 및 제14회 함춘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朴容昰회장을 비롯해 본회 權彞赫·姜信浩고문, 李吉女부회장, 모교 의대 姜大熙학장, 丁憲源병원장 등 3백여 명의 동문

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함춘대상 시상식에서는 학술부문에 沈英輔(의학55-61 전심영보외과의원 원장)동문, 의료봉사부문에 申英秀(의학63-69 모교 의학과 명예교수)동문을 선정해 상패와 메달을 수여했다.

이밖에 동창회 홈페이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15회 동기회와 동창회 및 모교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5개 지회에 감사장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2012년 회무 및 결산보고를 진행했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朴容昰회장과 李棹榮(의학63-69)동문 등 3명의 감사에 대한 재선임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새 회장에 梁光姬동문 선출

간호대동창회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洪京子)는 지난 3월 20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강당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겸한 장학금 수여식·신입회원 환영식을 개최했다.

洪京子회장은 개회사에서 “동창

회는 새 회장단을 중심으로 모교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모교 간호대 朴賢愛학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4년 동안 洪京子회장께서 보여 주신 모교 사랑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신임 회장단에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어진 동창회장상 포상 및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최우수 졸업생인 정나래 양에게 상장과 순금배지를 수여했으며 재학생 15명에게 1천9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2부 정기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새 회장에 적십자간호대 梁光姬(간호68-72)前학장을 추대했으며, 감사에 朴永淑(간호65-69)·金明愛(간호71-75)동문을 선임했다.

신임 梁光姬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 간호계를 이끌고 있는 모교 간호대동창회의 회장을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전임 회장님들을 따라 모교와 동창회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載)



柳聖圭동문 부부, 卞柱仙회장, 嚴桓燮동문, 金榮完동문 부부

柳聖圭동문 등 청관대상 수상

사대동창회

사범대학동창회(회장 卞柱仙)는 지난 3월 1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청관대상 시상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사도상 부문에 金榮完(수학교육72-77 양재고 교사)동문, 학술상 부문에 嚴桓燮(물리교육61-69 광운대 교수)동문, 공로상 부문에 柳聖圭(국어교육54-59 세계통통시인협회 회장)동문에게 상패와 부상을 전

달했다.

金동문은 35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며 철저한 교재 연구와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신장 및 인성 지도에 매진함으로써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嚴동문은 플라스마 전반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4백여 편의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논문을 등재하는 등 많은 연구 업적을 쌓고 있다.

柳동문은 ‘시조생활’을 발간하고 세계전통시인협회를 창립하는 등 우리의 전통시인 시조의 생활화 및 국제화 운동에 앞장서 왔다.

장학금 1억2천여 만원 수여

농생대동창회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鄭潤煥)는 지난 3월 6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대 교수회의실에서 2013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동창회 장학재단의 상록문화재단장학금 및 상록서현장학금과 농생대 교육연구재단의 일성장학금을 통해 재학생 55명과 고교생 9명 등 총 64명의 장학생에게 1억2천7백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여식이 끝나고 행사에 참석한 전원이 제3식당 내 음식점 두레미담에서 축하 오찬을 즐기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또 장학금을 받은 고등학생들은 농생대 2층 입학진로정보실에 모여 모교 탐방 안내를 받았다.



장학금 9백40여 만원 지급

수의대동창회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文漢)는 지난 3월 4일 모교 관악캠퍼스 수의대 스코필드홀에서 2013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애리(수의학4년)·김상화(수의학3년)학생에게 총 9백40만8천원을 지급했으며 李角模동문 장학금으로 김아름(대학원1년)학생에게 2백50만원, 尹石淳동문 장학금으로 김정민(수의학2년)학생에게 2백25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동창회는 같은 날 모교 관악캠퍼스 동원생활관 3층 ‘소담마루’에서 장학재단 鄭英彩이사장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재단 임시이사회를 갖고 기본재산을 3천만원 증자함에 따른 정관 변경을 승인했다.



대학원생에 연구비 전달

朴明潤·李幸子특지장학회

한국보건영양연구소 朴明潤(보대원74-76 관악회 이사)이사장은 지난 3월 25일 모교 보건대학원 회의실에서 2013년 1학기 ‘朴明潤·李幸子특지장학회’ 연구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金荷娟(보대원08-11)동문에게 1백만원, 석사과정 중인 洪京眞·朴賢鏡 학생에게 각각 5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연구비 전달은 모교 보건대학원 석·박사학위 논문 연구계획서 발표자 중 우수한 학생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

장학금 4천9백여 만원

전자동문회

전자동문회(회장 李熙國)는 지난 3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해동장학금으로 권동현(대학원2년)학생 등 4명에게 총 1천5백67만7천원, 봉립장학금으로 박수연(대학원2년)학생 등 3명에게 총 1천1백24만4천원, 權五鉉동문 장학금으로 도형록(전기정보공학2년)학생에게 5백만원을 지급했다. 또 朴濬秉·金在漢·李忠雄·孫東俊·尹鍾龍·洪錫炫·許炎·鄭德均·金達洙동문 장학금으로 9명의 장학생에게 총 1천8백만원을 전달했다. (載)

거짓말 탐지기

형사들이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형사1 : 거짓말 탐지기는 참으로 놀라운 발명품이야. 자네 그거 사용해본 적 있나?
그러자 다른 형사가 대답했다.
형사2 : 말도 말게. 사용 정도가 아니라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잖아!

이장님의 아이디어

도로 옆에 인접한 농촌 마을의 이장님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자동차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너무 위험도 하거니와 그놈의 소음 때문에 기르는 가축들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지라 마을 이장으로서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며칠을 고민 하다가 마을 앞 도



로가에 큼직한 표지판을 설치해 놓았다. 그러자 아예 차들이 거북이 기어가듯 속도를 낮추었다.
표지판에는 이렇게 써있었다.
“나체촌 길목! 차 안에서도 보임.”

아내 찾는 법

남편이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가 아내를 잃어 버렸다.
고민 하다가 앞에 지나가는 아주 섹시하게 생긴 여자에게 접근해서 말했다.
“저, 사실은 집사람을 잃어 버렸는데 몇 분만 저랑 이야기하실래요?”
“네? 근데 왜요?”
“왜냐하면... 제가 매력적인 여성하고 잠시라도 말을 나누고 있으면 아내가 귀신같이 나타나거든요.”
(독자제보 환영)

2012년도

동 창 회 결 산 공 고

재 무 상 태 표

201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산	4,071,157,913	부채	93,624,092
I.유동자산	4,064,503,778	I.유동부채	-
(1)당좌자산	4,064,503,778	1.미지급금	82,663,770
1.현금	1,834,440	2.예수금	6,599,100
2.보통예금	3,924,258,142	II.비유동부채	4,361,222
3.미수수익	62,925,366	1.퇴직급여충당금	4,361,222
4.미수금	54,000,000		
5.선납세금	21,375,830	자본	3,977,533,821
6.선급금	110,000	I.자본금	4,161,271
(2)재고자산		1.기본금	4,161,271
II.비유동자산	6,654,135	II.자본잉여금	
(1)투자자산	305,750	III.자본조정	
1.지급보증금	305,750	IV.이익잉여금	-
(2)유형자산	6,348,385	1.미처분이익잉여금	3,973,372,550
1.비품	64,971,600		
감가상각누계액	58,623,215		
합 계	4,071,157,913	합 계	4,071,157,913

운 영 성 과 표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운영수익	2,124,948,061	11.회의비	183,452,284
1.광고수입	647,528,873	12.지급수수료	7,656,022
2.수입이자	145,917,094	13.잡비	3,844,390
3.찬조금수입	171,349,484	14.전산화비용	15,546,400
4.회원회비	1,147,619,581	15.친목사업비	239,179,335
5.잡수입	12,533,029	16.지원사업비	26,535,510
II.운영비용	2,031,941,591	17.조직강화비	535,244,747
1.간행물비	871,091,684	18.사무비	14,018,120
2.직원급여	39,369,970	19.예치금전출	39,678,655
3.상여금	19,456,400	20.잡손실	30
4.제수당	8,316,560		
5.퇴직급여	4,361,222		
6.복리후생비	6,871,420		
7.여비교통비	4,328,288		
8.세금과공과금	6,500,320		
9.감가상각비	2,071,774	III.총운영차익	93,006,470
10.보험료	4,418,460	IV.당기순운영차익	93,006,470

위와 같이 공고함
2013. 3.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나의 총장 시절’ 대학史 포럼 개최

대학원동창회

대학원동창회(회장 崔鍾庫)는 지난 3월 18일 모교 관악캠퍼스 법대 서암법학관 4층 유기전세미나실에서 본회 林光洙회장을 비롯해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 모교 李長茂 前총장 등 18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史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李長茂 前총장이 ‘나의 총장 시절’을 주제로 2006~2010년 모교 총장으로 봉직하며 추진했던 주요 사업에 대해 회고했다. 특히 모교의 국제화,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국립대학법인 출범에 얹힌 다양한 일화를 소개하며 포럼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崔鍾庫회장은 이날 포럼의 의의에 대해 “모교의 발전을 위한 많은 동문들의 노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모교 학문의 뿌리를 찾고 아카데미즘을 다져나가는 이 포럼에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학史 포럼은 모교의 역사에 관련된 사건, 인물, 자료 등에 대해 자유로운 담론을 펼치는 월례 행사로서 학내외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문의 : 대학원동창회 02-880-7565〉

회장 이·취임식 열어

GLP동창회

글로벌리더십과정동창회(회장 李鍾大)는 지난 3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에서 국립암센터 면역세포치료사업단 權炳世(치의학65-72·GLP 19기)단장이 ‘암의 면역 치료’를 주제로 특강했다.

李鍾大(16기 한백CNT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제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많았지만 후의를 베풀어 준 동문 여러분에게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李鍾大회장(右)이 김용학 회원에게 공로패 전달

“우리 사회와 이웃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는 아름다운 동문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辛東烈(3기 성문전자 회장) 명예회장은 축사에서 “동창회 발전을 이끌어 온 李鍾大회장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한 뒤 “모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통해 이 사회와 국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

朴浩永회장·감사 4명 재선임

HPM동창회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동창회(회장 朴浩永)는 지난 3월 1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朴尙東·白純之 명예회장과 임원 및 동문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

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朴浩永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으며, 洪光植·柳熙瑾·金雲河·崔대중 감사를 재선임했다.

朴회장은 “과도기에 회장직을 맡아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동문들의 관심과 배려에 힘을 얻어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며 “비운 뒤 땅이 굳어지듯 동창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해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동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洪光植(3기)·安鎬元(6기)·韓尙樹(7기)·崔대중(13기)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동문 작품

지상 전시회



군무Ⅱ, 아르쉬(종이) 아크릴, 49.5×69.5cm, 2012

朴倫希作

〈작가약력〉

- ▲1967 모교 회화와 졸업
- ▲1970 모교 미술대학원 졸업
- ▲1999 안전기념 미술전
- ▲2008 개인전
- ▲2011 국제 누드 드로잉 아트페어
- ▲한국 미술 협회전 (34·35회)
- ▲민촌 아트 센터 기획 초대전 (9·10회)
- ▲63전 (1·8·10·12회)
- ▲예담전 (1·2·3·4·6회)

는 동문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2부에서 2012년 결산 및 감사보고를 가졌으며 회칙변경을 통해 임원 임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세무법인 석성 趙鏞根(19기)회장을 선임했다.

동창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골프대회(6월), 등산대회(10월), 송년회(12월)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임원연수 및 시산제 진행

AMPFRI동창회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朴恩熙)는 지난 3월 15~16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임원연수를 개최했다.

첫날 열린 기념행사에서 朴恩熙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임원들의 단합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으며 宋明儀교문, 모교 환경보건학

과 趙耕德교수가 축사를 했다.

1부 행사에서 서울종합예술학교 연기예술학부 신상훈 교수가 ‘유머가 이긴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2부에서 새로 선임된 임원에게 위촉패를 수여했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3월 9일 朴恩熙회장, 李基浩등산회장, 모교 보건학과 李承旭교수를 비롯해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에서 한 해 산행의 안전과 모든 동문의 행복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열었다. 〈載〉

2012년도

(재) 관 악 회 결 산 공 고

재 무 상 태 표

201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산	46,135,472,658	부채	3,073,396,349
I. 유동자산	16,026,406,541	I. 유동부채	166,514,294
(1) 당좌자산	16,026,406,541	1.미지급금	55,701,424
1. 현금및현금성자산	15,597,618,982	2.예수금	5,069,960
2.미수수익	351,754,698	3.부가세예수금	105,742,910
3.미수금	135,701	II. 비유동부채	2,906,882,055
4.선납세금	76,897,160	1.퇴직급여충당금	50,251,055
II. 비유동자산	30,109,066,117	2.임대보증금	2,854,981,000
(1) 투자자산	-	3.기타보증금	1,650,000
1.장기투자자산		자본	43,062,076,309
(2) 유형자산	30,109,066,117	I. 출연금	22,141,061,090
1.토지	624,290,410	1.출연금	22,141,061,090
2.건물	22,848,241,294	II. 기본금	11,191,161,364
감가상각누계액	904,409,550	III. 기본잉여금	245,147,956
3.구축물	4,039,127,510	IV. 이익잉여금	9,484,705,899
감가상각누계액	639,528,519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1,620,053,917
4.기계장치	5,892,474,484	2.미처분이익잉여금	7,864,651,982
감가상각누계액	2,185,829,613		
5.차량운반구	67,895,470		
감가상각누계액	40,407,465		
6.비품	194,011,000		
감가상각누계액	115,553,990		
7.시설장치	611,656,364		
감가상각누계액	282,901,278		
합 계	46,135,472,658	합 계	46,135,472,658

운 영 성 과 표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 운영수익	7,108,347,855	10.세금과공과금	90,027,680
1.이자수익	593,816,283	11.감가상각비	2,560,609,542
2.지원금	1,377,810,098	12.보혐료	14,255,730
3.임대수익	3,342,146,027	13.차량유지비	7,723,479
4.관리비수익	1,794,154,506	14.목적사업운영비	24,993,134
5.잡이익	420,941	15.사무용품비	1,084,950
II. 운영비용	6,930,682,288	16.소모품비	88,317,790
1.직원급여	118,061,900	17.지급수수료	67,894,870
2.상여금	62,950,180	18.건물관리비	634,151,900
3.제수당	38,867,010	19.장학사업비	1,789,957,000
4.퇴직급여	22,453,728	20.기타목적사업비	957,846,500
5.복리후생비	5,373,770	21.잡손실	5,320
6.여비교통비	10,910,000		
7.통신비	5,310,283		
8.수도광열비	131,937,605	III. 총운영차익	177,665,567
9.전력비	297,949,917	IV. 당기순운영차익	177,665,567

위와 같이 공고함
2013. 3. .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장 林 光 洙

새로 부임한 동문 기관장 환영

대전·충남지부동창회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3월 20일 대전 둔산동에 위치한 한정식당 예술마당에서 동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 기관장 환영회를 개최했다.

뮏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전 지역으로 부임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모교의 명예를 걸고 이 지역의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한 후 趙炳顯(법학74-78)대전고등법원장, 朴三奉(법학75-79)특허법원장, 孫旺錫(철학75-80)대전가정법원장에 게 취임 축하패를 전달했다.

한편 지부 내 소모임인 기우회에서 활동하는 吳應準(약학58-



62)회장을 비롯한 金康造(약학64-68)·安正雄(화학82-87)·崔承鎔(경영85-89)·宋秀準(원자핵공학88-93)동문 등 5명이 지난 3월 2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열린 한일 바둑교류전에 한일친선협회 대전·충남지부 소속 회원들과 함께 참가했다.

金昌範회장 선출

안양지부동창회

안양지부동창회(회장 辛丁哲)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안양시 어반부터크호텔 컨벤션홀에서 40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제2대 회장에 해성내과의원 金昌範(의학70-78)원장을 선출했으며, 수석 부회장에 韓楠熙(항공공학75-79)동문, 부회장에 朴榮麟(기약71-78)·任承幸(의학75-81)·張永蘭(국약75-80)·柳龍茂(약학76-80)·鄭重熙(의학78-84)·李永稷(철학79-86)·鄭祥喆(치의학82-88)동문을 선임했다.

또 金雲基(응용미술78-82)사무국장, 金壽燮(공법85-89)감사를 재선임했다.

모교 신입생 초청 모임

김포지부동창회

김포지부동창회(회장 金鍾逸)는 지난 3월 25일 김포시 감나무집 식당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모교 신

입생 7명과 학부모를 초청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기념품으로 시계를 전달했다.

金회장은 인사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인간성도 풍부하게 갖춰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재로 거듭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李充陽회장 취임

동송클럽

문리대 65학번 모임인 동송클럽(회장 白勝基)는 지난 3월 8일 서울 삼성동 현죽빌딩에서 31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제26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입 회장에 李充陽(중문65-69 前고려대 교수)동문을 선출했다.

이어 2013년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분기별 포럼을 비롯해 4월 안동 문화역사유적 탐방, 5월 강화도 온천여행, 12월 송년회 등 연간 행사 일정을 공지했다. 또 바둑, 등산, 영화 등 동호회 정기 모임의 활성화를 결의했다.

제26차 포럼에서는 梁永洙(종교65-69 前제주대 교수)동문이 연사로 초빙돼 ‘제주신화의 여성원리’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載)



金正鉉·白文基·孫一根·尹明老·林光洙·李信子·李鍾祥·崔松和동문

尹明老명예교수 ‘정신의 흔적’ 회고전 열어

모교 서양화와 尹明老(회화56-60)명예교수가 지난 3월 26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 제2 전시실에서 ‘정신의 흔적’을 주제로 회고전을 열었다.

6월 2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

시회는 1950년대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50여 년 동안 독창적인 추상회화의 영역을 개척해 온 尹명예교수의 작품 활동을 조망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본회 林光洙회

장을 비롯해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 대한민국예술원 金正鉉회장 등 1백여 명의 동문과 관람객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尹화백은 우리 서울대학교가 낳은 현대 서양화가의 최고 권위자로서 우리 시대의 큰 자람”이라며 “이번 회고전이 尹화백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尹明老명예교수는 “57년 가까이 쌓아왔던 작품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보인다”며 “오늘 이 미술관에 펼쳐져 있는 제 작품의 진실을 보시고, 저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터뷰 11면 참조)

모교 역사 자료 수집에 관심 확산

현재까지 동문 8명 기증 접수

본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기념관 건립 자료수집에, 현재(4월 1일)까지 모교 기록관과 동창회에 8개 품목이 접수됐다.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申明珪(생물교육48-54)동문 : 졸업증서 및 사대동창회 77년

앨범 ▲裴德潤(성악50-53)동문 : 음악회 사진 액자류 6개 ▲金化中(심리54-58)동문 : 발령통지서 및 임용장 등 ▲金榮春(기계공학61-65)동문 : 61년 공과대학 교재 및 학보류 총 31권 ▲任聖彬(토목공학63-68)동문 : 졸업기념품류와 교과서 및 수업노트 등 2박스

▲崔元吁(독문65-71)동문 : 재학 시절 사용하던 노트 2개 ▲文昌燁(가정관리72-76)동문 : 가정대학 학보 ‘아람’(창간호~4호), 여학생부 학보 ‘여울’(4~6권), 공대사(78호), 공대 소식지(2000년) ▲韓明洙(수의학74입)동문 : 74~75년 재벌이 및 버클 2점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임광수)와 서울대(총장 오연천)는 2015년에 맞을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문과 가족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 대상 :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 1) 문서류 :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 2) 시청각물류 :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 3) 간행물류 :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 4) 박물류 :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 5) 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 기간 : 2013년 12월 31일까지

3. 수집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 화 : 02-702-2233 팩스 : 02-703-0755 E-mail : webmaster@snu.ac.kr
주 소 : (151-919)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4-2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416호
담당자 : 임성용 과장 핸드폰 : 010-3945-3925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 화 : 02-880-8819 팩스 : 02-884-7149 E-mail : archives@snu.ac.kr
주 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자 :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 010-3032-5913

5. 제공자 혜택 : 역사기념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임광수·서울대학교 총장 오연천

4·5 월 행사 캘린더

4월 22일(월) 오전 10시

• AMPFRI동창회 골프대회

경기도 광주시 남촌CC

(문의 : 02-742-8863)

5월 5일(일) 오전 10시

• 상대동창회 등산대회

관악캠퍼스 버들골

(문의 : 02-761-2278)

4월 27일(토) 오전 10시

• 사대동창회 등산대회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입구

(문의 : 02-720-8116)

5월 11일(토) 오전 10시 30분

• 농생대동창회 상록의 날

관악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

(문의 : 02-882-8630)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치대·치대원동창회 朴健培회장
(박건배치과의원 원장)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는 지난 2월 19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朴健培(치의학70-76)치과의원 원장을 제31대 회장으로 선출했다.朴회장은 “우선 효율적인 회원간 소통과 폭 넓은 화합에 주안점을 두고,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모임으로 동창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셨는데.

“동창회는 선후배간의 연결고리이자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뿌리를 만들 수 있도록 상호 소통과 화합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동창회가 더 튼튼해지면 모교와 치과계 전체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면.

“전문 의료인들의 모임으로서 치과계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동창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봉사를 구상 중이며,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의 막힘 없는

“사회적 약자 위한 의료봉사 구상”

- 동창회 소개를 해주신다면.

“전체 회원 수는 8천여 명이며, 연간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모교와 연계해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해 동문간 친목 향상을 위한 등산 및 골프대회 등의 연례행사를 갖고 있으며, 특히 매년 초 동창회 신입회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DCO(Dental Community Orientation) SNU’를 열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선후배 동문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올해 주요 사업은.

“오프라인 소식지를 만들어 전체 회원의 원활한 소식 공유를 돕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연 2회 제작하는 회보 이외에 동창회 소식지를 새로 만들어 연 3회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

소통이 선행돼야 하겠죠.”

- 동문들에게 한 말씀.

“과거 우리나라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모교 동문들이 꾀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서로 돕고 지내 왔지만, 최근 동문 치과의사들의 연결고리가 조금 느슨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팍팍한 세상일수록 따뜻한 정서를 한데 모을 수 있는 매개체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임원진과 함께 힘을 모아 관심이 가는 동창회, 찾게 되는 동창회를 만들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을 기대합니다.”

朴회장은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구강외과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초구치과의사회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초대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모교 치의학대학원 외래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언론대학원동창회 南善顯회장
(JTBC 상임고문)

토론을 펼쳐왔던 것은 독특한 자량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추진할 사업은.

“4월 중 회장단 회의를 갖고 임원진 선임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정기세미나의 부활 및 등반대회 등 친목모임의 활성화를 함께 논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동창회 활성화 방안은.

“신문대학원 동문들의 모임과 언론정보학과 동문들의 모임이 따로 존재하다 보니, 뜻하지 않게 동창회가 이원화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동문간 화합을 위해 젊은 동문들, 즉 언론정보학과 출신 후배들의 동창회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고 그 뒤를 신문대학원 출신 선배들이 받쳐주는

언론대학원동창회는 지난 2월 22일 회장단 모임에서 JTBC 南善顯(대학원77졸) 상임고문을 회장에 추대했다. 南회장은 “신문대학원을 졸업한 선배 동문과 대학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한 후배 동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 회장을 맡으신 소감은.

“동창회에는 과거 특수대학원이었던 신

“정기세미나 등 특성화 행사 추진”

문대학원 출신 동문을 비롯해 1975년 학제 개편 이후의 일반대학원 신문학과, 1996년 학과명 개칭 이후의 언론정보학과 출신 동문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학제에서 공부한 선후배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역할에 대한 책임자로 제가 지목된 것이라 생각하며, 큰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동창회 현황은.

“많은 회원이 현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언론인으로서 높은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2백여 명으로, 동창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원로 동문 중 작고한 분이 많기 때문에 조직의 재정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부하는 동창회, 연구하는 대학원’을 신조로 연 2~4회 조찬세미나 또는 포럼을 갖고 심도 있는 주제 발표와

형태로 조직 구성 및 운영의 기반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모임의 대표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 회원들에게 한 말씀.

“늘 가변적이고 숨가쁘게 돌아가는 언론 일선의 기자들은 동창회 행사에 참석률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바쁜 와중에도 찾게 되는 동창회, 도움이 되는 동창회, 세대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동문이 함께 호흡하는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회장단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정선 출신의 南회장은 휘문고와 모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모교 대학원에서 신문학 석사, 성균관대에서 신문방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KBS미디어 사장, JTBC 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방송대상 대통령상 등을 수상했다. (載)

since 1999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국민의 행복 기업의 내일, KB가 함께 하겠습니다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b KB 국민은행
*b KB 생명
*b KB 인베스트먼트
*b KB 저축은행

*b KB 국민카드
*b KB 자산운용
*b KB 신용정보

*b KB 투자증권
*b KB 부동산신탁
*b KB 데이터시스템

*b KB 금융그룹

화제의 동문

모교 서양화와 尹明老 명예교수

추상표현주의, 즉 액션 페인팅은 1940~1950년대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난 전위 회화 운동이다. ‘그러진 결과’보다는 습관적인 기법이나 고정관념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그리는 행위’ 자체를 중시하는 미술사조로서, 잭슨 폴록을 대표적인 선구자로 꼽을 수 있다.

모교 서양학과 尹明老(회화56-60)명예교수는 1950년대 후반 ‘영포르멜(비정형·서정적 추상회화)’ 경향의 연작을 발표한 이래 50여 년 동안 독창적 표현으로 한국 미술계에서 추상회화의 영역을 개척해낸 거장이다.

그는 사르트르의 소설 ‘벽’을 모티프로 한 ‘벽B’로 1959년 대한민국 미술대전(국전)에서 특선을 차지했으나, 예술에 서열을 매기는 부조리에 반기를 들고 ‘60년 미술가협회’를 창설해 반국전을 선언하는 등 한발 앞선 시대정신을 몸소 실천해 왔다.

예술적 고뇌 통해 화풍 변모 거듭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처럼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운동을 선도한尹동문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윤명로 : 정신의 흔적’

독창적 추상회화 영역 개척한 대가
회고전 ‘정신의 흔적’… 50여년 열정 한눈에

회고전을 지난 3월 26일부터 개최하고 있다.

尹동문의 이번 전시회는 195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10년 주기로 큰 변화를 보였던 그의 시대별 대표작을 비롯해 2012년 작업한 대형 신작 등 6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작품들은 연대별 섹션으로 구분돼 있으며, 전시장 내 동선을 따라가다 들어 서게 되는 세 곳의 방에서 평론가 인터뷰, 화백 본인의 회고 등이 담긴 3편의 다큐멘터리 영상이 상영돼 작품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돕는다.

“제 그림을 두고 스스로 ‘랜덤하다’는 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랜덤이라는 말은 종잡을 수 없이 형성되는 무질서나 혼돈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홀로 오랜 사유를 거듭해야만 나타나는 내면적 세계 또는 정신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이번 전시회의 제목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붙이게 된 것이죠.”

尹동문은 자신의 예술적 고뇌와 사유를 끊임없이 발화시키며 변모를 거듭해 왔다. 그의 작품들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열정의 증거이자 의지의 산물로써, 화백 스스로를 위한 것임과 동시에 대중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림이 반드시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회화의 본질은 결국 추상으로 귀결됩니다. 주제를 떠나 공간과 색채와 형태의 호흡을 다룰 때 훨씬 자유로울 수 있으며, 스스로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루하지 않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술계 등단 이후 1990년대까지尹동문의 작품들은 격정적이고 때로는 드라마틱

한 에너지를 표출해 왔다. 또 그가 2000년대에 선보인 ‘겸재 예찬’ 연작은 진경산수화풍을 창안한 조선 후기의 화가 謙齋鄭敼을 예찬하는 동시에, 자연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세상을 관조하는 명상과 여유의미를 유감없이 그려내고 있다.

정체성 확립·발상의 전환 강조

“근대회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세잔의 고향인 프로방스를 찾아 그가 80여 점이나 그림으로 남긴 생트 빅투아르 바위산을 봤는데, 그 순간 겸재의 인왕제색도가 생각나더군요. 그리곤 겸재의 천재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세계화를 부르짖기 이전에 우리가 가진 그런 훌륭한 문화유산을 더 소중히 여기자는 마음에서 겸재 예찬이라는 화두를 던지게 된 겁니다.”

1972년부터 2002년까지 30년 동안 모교 서양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던尹동문은 인터뷰 말미에 모교와 후배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며 예술가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교수 시절 제자들에게 늘 자기 정체성 확립과 발상의 전환, 그리고 한 가지 현상에 묶여있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의 모교는 좋은 커리큘럼과 미술관을 갖추고 있는 만큼,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에도 힘을 쓰며 정진한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를 많이 배출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載)

한국자살예방協 安容旻 회장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31.7명, 30분마다 1명씩 한해 1만5천9백6명(2011년 기준)이 자살하고 있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다. 특히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81.9명에 달한다.

정부는 자살을 사회(지방자치단체·기업·학교 등)가 관리해야 할 문제로 간주해 지난해 3월 31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2011년 3월 30일 제정’을 시행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해 한국자살예방협회에 위탁했다.

올해로 설립 10년째를 맞는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생명존중의 정신을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최근 모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安容旻(의학83-89)교수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번에 자살예방협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에 대해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정신과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변 사람의 감정 잘 살피야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조직은 크게 중앙정부의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자살에

대국민 ‘생명 지킴이’ 문화 조성에 힘써
‘중앙자살예방센터’ 총리실 산하로 기능 강화해야

방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전문가 양성, 각종 범국민 활동에 참여하는 ‘자살예방협회’로 구분된다.

현재 ‘중앙자살예방센터’는 보건복지부 협조하에 광역 단위의 정신보건센터 및 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생명존중에 대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자살예방협회’는 인지, 학습, 활용의 세 단계로 이뤄진 한국형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를 개발해 전국에 대단위로 배포하고 있다.

“실제 소리소문 없이 극단적으로 자살

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대개는 심리적으로 부정과 긍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 좀 도와줘’라는 사인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사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되면 그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安회장은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의 위험한 감정을 잘 살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직장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위험 상황과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행동·상황적 신호를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서 활용해 볼

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올해 자살을 조장하는 선정적인 언론보도 및 유해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제재하는 가이드를 마련해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평가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선정적 보도·유해 사이트 제재

우울증·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 위험성이 높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3백68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화제의 동문

치료를 받는 비율은 극히 낮다.

이에 安회장은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캐치프레이즈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울증·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대국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살 문제에 관한 대책은 보건복지부의 관할하에 일괄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부처별로 각각 움직이는 것을 지적한 安회장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총리실 산하로 통합되거나 직속기구가 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더 효율적인 정책 수행과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安회장은 3년의 임기동안 각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자살예방에 관한 정보,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합,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협회가 자리매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인터뷰 말미에 “각 분야에 영향력이 큰 모교 선·후배들이 생명을 살리는 한국자살예방협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재능 기부를 부탁했다.

安회장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위원 및 총무이사과 대한생물정신의학회 교육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모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美)

어려울 때 빛나는 대한민국 스타로 인정받아



비즈니스 △브랜드 △인재 양성 △환경
△품질 △연구개발(R&D) 등 총 8
개로 이보균 대표는 동반성장 부분
에서 선정되었다.

이번 수상은 카길애그리퓨리나가 45년 넘게 대한민국 축산업에 기여한 공로와 축산인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고 한국 축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성장 가능하도록 함께 성장하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보균 대표는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가치를 목표로, 앞으로도 동반 성장하기 위해 가치 중심으로 생각하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외 출장으로 직접 시상식에는 마케팅연구기술부장세원 부사장께서 대리 수상하였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한국에 축산업이 태동하던 1967년 진출해 국내 사료 및 축산업계 선두주자로 산업 발전에 공헌해왔다. ‘최고급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보다 싸게, 보다 많이 생산해 농가소득 증대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사업을 시작한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완전배합사료와 최신사양 기술 보급 △우수한 가축 개량 방법 소개 △농장운영 및 경영관리 개선 등을 통해 가축 사육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왔다. 1968년 현대식 대규모 사료공장을 건설했고 지금은 송탄, 군산, 김해, 천안, 정읍에 HACCP 인증을 획득한 최첨단 시설을 보유하고 연간 150만여 t의 사료를 생산 중이다. 전국 7개 하치장을 통해 농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직원수는 500여 명에 달한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1865년 설립된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본사를 둔 카길의 자회사다. 한국에서는 1967년에 설립된 애그리브랜즈퓨리나코리아와 1987년 설립된 카길코리아가 2007년 12월 1일 통합법인 카길애그리퓨리나로 출범했다. 이보균 대표는 “카길애그



리퓨리나는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세계적 리더가 된다’는 비전과 ‘차별화된 가치를 창조한다’는 사명으로 고객 여러분께 다가갈 것”이라며 “오랜 기간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 중심의 경영혁신과 차별화된 가치창조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이념 아래 왕성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카길애그리퓨리나의 사회공헌 활동은 크게 문화재단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 글로벌 카길과 연계해 진행되는 활동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애그리브랜즈퓨리나코리아는 한국 축산업을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취지 아래 1997년 8월 재단법인 카길애그리퓨리나문화재단을 설립했다.

농업분야에서 유일한 문화재단으로 15년을 성장해온 카길애그리퓨리나문화재단은 축산 및 사료분야의 학술적 연구활동과 기술발전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장려하고 있다. 국내외 축산 분야 고등학생, 대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387명에게 총 6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축산 관련 지도자, 교수, 수의사로 구성된 카길애그리퓨리나문화재단 기술자문위원회는 매년 개최되는 세미나를 통해 신기술 및 연구실적을 알리고 축산 및 사료산업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개 단체 60명에게 대상을 수여했고 축산 발전을 위해 9억5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Since 1997

인류를 풍요롭게! 지역사회를 풍성하게! 카길애그리퓨리나문화재단

헌신적인 섬김의 약속을 실천합니다!



연관산업 기술발전에
기여합니다.



우수한 인재양성에
이바지합니다.



풍요로운 사회 만들기에
앞장섭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최초의 문화재단으로 1997년 부터 한국 축산 발전을 위해 축산 및 사료분야의 학술적 연구 활동과 기술발전을 지원하고 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장려하여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애견분야와 식품안전분야, 환경분야에도 계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류를 풍요롭게, 지역사회를 풍성하게” 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호단양 C.C 퍼블릭 18홀



2010 한국 10대 퍼블릭 베스트코스에 선정!

36홀 라운딩시 무료숙박찬스!!

서울 및 수도권에서 1시간 30분!!
원주, 충주, 안동지역에서 30~40분!!

1박2일골프+무료숙박 패키지 (24평 아파트형)

이용안내 · 숙박 패키지 이용요금 (36홀 라운딩 + Guest House 숙박 + 조식)

구 분	평일+평일	금요일+토요일	토요일+일요일	일요일+월요일	비 고
그린피 1일차	98,000	98,000	160,000	130,000	• 그린피, 카트료 포함 (캐디피 제외) • 게스트 하우스 이용時 저녁식사 및 안주류 20% 할인 • 1회 이용시 마다 꽃마을 연습장 (서울 서초동) 무료쿠폰 2매 증정 (희망자에 한함)
2일차	98,000	160,000	150,000	98,000	
카트료	36,000	36,000	36,000	36,000	
숙박비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조식(1식)	무료	무료	무료	무료	
1인합계	232,000	294,000	346,000	264,000	
1인1일 환산시	116,000	147,000	173,000	132,000	
팀합계	928,000	1,176,000	1,384,000	1,056,000	

• 연휴기간 제외 (별도요금 책정)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daehocc.co.kr)

※ 계열사인 꽃마을 골프연습장에서 1박2일(36홀) 리무진버스를 무료로 운행합니다. 문의전화 02)585-5600

※ 주변 유명 관광지 : 단양 8경, 제천청풍호



대호단양 C.C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 300-1번지 TEL. 043)420-7100 FAX. 043)420-7169

www.daehocc.co.kr 모바일 웹: m.daehocc.co.kr

회장 황 호 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AMP 36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02-12 TEL. 02)521-3982 FAX. 02)521-0245

계열사 (주)대호 IR · (주)대호레포츠 · (주)대호알프스톤 · (주)월간세라믹스 · 월간도에

“과학발전은 기초연구 지원 확대가 우선돼야”

동문을 찾아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朴 聖 炫**원장

지난 3월 8일 모교 통계학과 朴聖炫(화학공학64-68)명예교수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7대 원장에 임명됐다.

朴聖炫원장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연구 치중에서 벗어나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의 원천기술연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기술을 살려 세계에 과학기술 한류를 일으켜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대 담 : 金永燮(연합뉴스 홍보기획팀장)논설위원



— 제7대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림원) 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한 달 가량 지났는데 업무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는지요.

“지난 3년간 한림원의 정책담당 부원장을 지낸 것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할 수 있지요.”

— 한림원은 과학기술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민간외교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자 지난 1994년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역할 및 중요성에 비해 인지도는 낮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소개를 해주신다면.

“역사도 짧고 초기에는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아직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활동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림원의 주 역할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활동을 들 수 있지요. ‘한림원의 목소리’라는 홍보용 팸플릿을 통해 장기적으로 방향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한림원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활동을 하는 데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양자 국제협력을 통해 다양한 심포지엄을 열기도 합니다. 또 한림원에서 운영하는 아세아과학한림원연합회(AASA)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석학을 파견하는 등 과학기술의 국제적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림원이 과학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석학, 과학기술을 말하다’라는 책을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는데, 고교생이 봐도 이해가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종신회원으로 구분되며, 조직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정회원으로 현재 4백7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학부, 공학부, 의학학부, 농수산학부, 정책학부 등 5개 학부로 구성됐으며 각 학부별로 정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25~30명의 회원을 뽑는데 1백50여 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등 경쟁률이 높습니다.”

— 취임과 동시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지금까지 ‘대외협력위원회’, ‘에너지·녹색과학기술위원회’, ‘미래과학기술위원회’,

‘융합과학기술위원회’ 등 다수의 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자 ‘적정기술위원회’, ‘기초과학교육위원회’, ‘과학자·인권위원회’, ‘소프트웨어·빅데이터위원회’, ‘스포츠과학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등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 예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른 나라의 경우 한림원이 국가적인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지난 2003년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다양한 심포지엄 및 포럼 등을 개최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해 발표할 생각입니다.”

— 朴槿惠대통령 스스로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국정철학의 첫 번째로 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제가 이해하는 창조경제론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한 과학기술 기반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융합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며 새로운 경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 박원장은

모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산업공학 석사학위와 통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 모교 교수로 부임한 후 모교 학생처장, 자연과학대 학장, 평의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응용통계학 분야 전문가로서 실험계획법, 회귀분석, 통계적 기업의 품질·생산성 향상 및 최적화,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해 1980년 품질관리 유공자상(국무총리), 1990년 품질관리 문헌상(국무총리), 2000년 홍조근정훈장(대통령)과 품질경영 유공자 훈장, 2008년 서울특별시 문화상(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한 공로), 2010년 Gopal Kanji Prize(국제 통계 학술논문상) 등을 수상했다.

‘추격형 연구’서 ‘선도형 연구’로의 전환 필요

‘한림원의 목소리’ 발행…국가정책 방향제시

건립한 한림원 자체 건물 임대료를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난 3월 20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한림원은 새롭게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정책 성공을 위해 힘을 실어주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정책이 있는지.

“창조경제 정책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 제안을 ‘한림원의 목소리’와 기타 출판물들을 통해 꾸준히 알릴

리기 위해서는 종래 ‘추격형 경제(연구)’에서 ‘선도형 경제(연구)’로 바뀌어야 합니다. 선진국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 있다면.

“R&D 전주기를 보면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산업화 연구, 창업 및 신제품 생산연구로 이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발연구와 산업화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해 왔습니다. 추격형 경제를 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이제 선도형 경제로 바뀌기 위해서는 원천기술연구라 할 수 있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에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연구 지원을 살펴보면 50%가 개발연구에 치중돼 있고 기초연구는 30%에 불과한데 이를 선진국 수준(40~50%)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개발연구 중 상당 부분을 대기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기업들이 하는 개발연구는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대학 및 출연연구소 등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통계학의 전문가로 유명하신데, 전공분야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정책이 있다면.

“소프트웨어·빅데이터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과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국가통계 선진국이 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 지원할 생각입니다.”

— 현재도 강단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계시는데 젊은 인재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여전하다는 얘기가 많아 저 또한 이공계 출신으로서 안타까움이 큼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학생들은 선배들을 보고 느끼면서 진로를 결정합니다.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중심사회가 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예를 들면 고공공무원으로 다수의 과학기술인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연의 연구원들의 정년을 늘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모교 출신들이 요직에 많이 진출해 우리나라를 명실공히 과학기술 중심사회로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한림원이 발전하면 결국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곧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니 사회 각 분야에서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 동문들께서 한림원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 우리나라가 싸이를 비롯한 문화한류로 뜨고 있는데 언젠가는 과학 한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과학기술, 예를 들어 한옥을 만드는 기술 등 한국적인 고유의 전통기술을 잘 포장해서 세계에 판매할 수 있다면 과학기술한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과학의 창조성에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김치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음식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식품연구소도 하나의 과학기술연구소라고 봤을 때 김치를 잘 포장해 세계적인 음식으로 만든다면 이 또한 과학기술의 한류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품목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제협력 부문에 좀 더 치중하겠다고 하셨으니 같이 연계해서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朴新載기자·정리= 林香默기자)

“대학 구성원의 의견 조정·합의 도출에 가장 큰 역할”

동문을 찾아서

모교 평의회회 박鍾根의장



2011년 11월 모교 평의회회 의장에 취임한 박鍾根(전기공학 69-73)동문은 모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장서 왔다.

차의장은 “모교가 총동창회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력해 나아가면 ‘베세토’ 교류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최근 모교와 도교대가 법인화 전환 경험을 공유하고 대학 법인의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모교를 찾은 도교대 부총장단과의 논의에서 소통 역할을 맡은 차의장을 만나보았다.

대 담 : 許英燮(한국언론인연합회 이사)논설위원

—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작년에 모교가 법인으로 출범하면서 평의회회가 심의·의결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됐습니다. 평의회회가 학칙과 규정들을 만들고 개정할 내용이 많았습니다. 연구교육 자체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는 행정적인 일로 무척 바쁘게 보냈습니다.”

— 평의회회는 대학의 대의기구, 최종 심의기구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동문들이 평의회회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현재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4개의 조직이 있으며, 교수 47명과 직원 3명 그리고 2명의 학생참관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교수 가운데 44명은 각 단과대학에서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으며 3명은 전문성을 요하는 인물로 의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장회의가 학사위원회로 바뀌었고,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건 평의회회로 오게 되죠. 교육연구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평의회회 심의로 종결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의 국회에 해당됩니다.”

— 의장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평의회회가 특별한 조직이지 않을까? 대학 구성원간의 의견이 다른데 이를 조정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의장은 소통을 위해 먼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참고 들어주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평의회회 의원 중 90% 이상이 교수들로 구성돼 있어 교직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의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법인화 이전에는 교수들과 외부 사람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사실 90% 이상이 교수로 구성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의회회에서 다루는 안건이 직원의 일과 관련이 많지 않을뿐더러 직원들은 노조라는 특별 단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구성원으로서 공통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3년 전부터 위촉위원으로 3명의 직원이 들어오게 됐죠. 최근 본회의에서 5명 정



• 차의장은

1952년 충남에서 태어나 1973년 모교 공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다. 도교대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후 1983년부터 현재까지 모교 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기공학 분야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모교 재직 중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소장, 연구처장, 공대 기획위원회 위원장, 평의회회 상임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현재 평의회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교대 및 미국전기전자학회 Fellow인 대한전기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산업자원부 산업포장, 한전학술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21세기 인간과 공학’, ‘학문,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저술이 있다.

도교대와 심도있는 교류 통해 네트워크 강화해야 총동창회와 협력해 ‘베세토’ 교류 활성화 이룰터

도로 인원을 늘리는 것을 토의했습니다만 현재 법적으로 평의회회 총 인원수가 50명 이하로 제한돼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부속시설에서도 참관해야 균형이 맞을텐데 결론적으로 전체 구성원을 60명 정도로 늘리려면 법 개정을 요하죠.”

— 임기가 올해 10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임기가 끝난 후 계획은 세우셨는지요.

“교수는 보직을 맡더라도 강의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현재 한 과목은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정년은 5년이 남았고 또 다른 일을 맡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교육연구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 평소 건강관리나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머리가 아프면 시간을 내서 관악산을 오릅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연주대 정상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안양으

로 넘어가는 능선을 따라서 등산을 합니다. 활엽수 사이로 2시간 정도 걸으면 머리가 상쾌해집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맨손체조와 유연성 운동을 합니다. 또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죠.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몇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무실이나 강의실에 들어오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낙성대역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을 만나면 기분까지 좋아 집니다.”

— 도교대 예가와 부총장과 인연이 있으시지요. 도교대와 교류도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1976년 도교대에 유학생으로 가서 1983년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저와 전공은 다르지만 예가와 마사코 수석부총장이 저보다 5년쯤 후배더라고요. 제 연배에서 일본으로 유학 갔다 온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李基俊

前총장이 도교대 졸업식에서 축하할 때 수행을 했었고, 또 10년 전 鄭雲燦 前총장 시절 연구처장을 맡고 있을 때 도교대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했고, 우리는 일본연구소를 만들었죠.”

— 의장님께서도 모교 동문이자 도교대 동문이기도 하시지요.

“도교대 한국동창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교대는 해외 동창회가 없었습니다만 2년 전 한국에서 처음으로 재한 도교대동창회를 만들었습니다. 3·11 동일본 재난이 일어난 일주일 후인데도 불구하고 도교대 하마다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교대동창회 출범식을 가졌는데 吳然天 총장, 鄭雲燦 前총장이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도교대 부총장단과의 만남이 있었던 하루 전날 도교대 한국동창회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예가와 수석부총장이 축하를 해서 언론에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저는 모교와 도교대 동문으로서 양 대학 동창회의 관계를 돕고 싶습니다.”

— 아시다시피 예가와 부총장이 지난 1월에 모교를 방문했을 때 총동창회 회장단과 만나 양교 총동창회간 교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의장님께서도 2월 도교대에서 예가와 부총장과의 면담에서 이와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양교 교류를 심도있게 해보자는 측면에서 도교대 예가와 수석부총장 외 2명의 부총장이 1월에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마침 대외담당 이사인 예가와 수석부총장이 총동창회를 방문해서 장학빌딩과 서울대인 명예의 전당 ‘베리타스홀’을 보고 매우 감탄했죠. 특히 임대수의 40억원을 바탕으로 모교 발전에 이바지하는 장학빌딩 운영과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신년교례회’, ‘정기총회’, ‘홈컴데이’ 등의 행사에 놀라워하며 33만 동문의 단합을 부러워했습니다.

사실 평의회회 의장이 참석하는 자리가 아니지만 吳然天총장께서 소통자 역할을 해달라고 하셔서 지난 2월 도교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하마다 총장이 총동창회의 현황을 듣고 관계자들을 불러 총동창회 운영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며 방안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교대 측에 서울대총동창회 행사 때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林光洙회장께서는 도교대 총장을 초청하는 것과 도교대동창회 회장과의 교류 협정에 관해 제안을 드렸습니다. 林회장께서 흥쾌히 승낙하시며 정기총회 등 큰 행사에 도교대동창회 직원을 초청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총동창회 국제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창회 사이의 교류가 있기 전에 대학간의 교류가 있잖아요. 모교와 도교대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너지효과로 서울대총동창회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력해 나아가면 ‘베세토’ 교류 등의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진= 朴新載기자·정리= 金貞美기자)



3학년 재학생 나이팅게일 선서

모교 소식

간호대학

간호대학(학장 朴賢愛)은 지난 3월 5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 강당에서 제5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朴賢愛(간호76-80)학장의 식사에 이어 모교 邊昌九(영문70-74)교육부총장, 모교 병원 丁憲源(의학69-75)원장, 宋慶子(간호80졸)간호본부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모교 병원 金承協(의학73-79)진료부원장, 의대 姜大熙(의학81-87)학장, 金聖竣(의학85-91)연구부학장, 치의학대학원 李在一(치의학81-85)원장, 李勝杓(치의학89-93)기획부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대 3학년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앞서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인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로 부모님과 선후배 앞에서 촛불을 점화하고 선서하는 행사이다.

첫 직선 교수협의회장에 농생대 李政宰교수 당선

지난 3월 27일 교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李政宰(농공학69-73)교수(사진)가 제3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李政宰교수는 지난 3월 18~22일 모교 첫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에서 유권자 1천3백43명 중 8백57명(64%)의 표를 얻어 서양사학과 崔甲壽교수를 누르고 당선됐다.



신임 李회장은 농공학과를 졸업한 뒤 모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4년 모교에 부임해 교수협의회 농업생명과학대학지부 총무,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장, 학생처장, 캠퍼스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새만금위원회 위원,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겸무 교수, 기후변화센터 정책분과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후원 기업과 장학기금 협약

교수학습개발센터(소장 林哲一)는 지난 3월 6일 '서브라임' 학습공동체 장학기금을 후원한 기업과 장학기금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모교 邊昌九교육부총장과 林哲一교육부처장 겸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삼성생명 朴根熙부회장을 비롯해 학생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브라임 학습공동체는 기회균형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들이 1학년 기간 동안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대학공부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지원프로그램으로 6~7명의 신입생과 멘토, 리더,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로 구성된 운영되고 있다.

서브라임 장학기금은 총 8천6백만원으로 학생들의 학습활동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후원 기업은 '서브라임 학습공동체' 참여 학생들에게 방학 중 기업 탐방 및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한다. <美>

테오도르 金교수 강연 공과대학

공과대학(학장 李愚日)은 지난 3월 19일 모교 관악캠퍼스 39동 다목적회의실에서 제85회 아카데미상(기술혁신상) 수상자 테오도르 金(Theodore Kim, 한국명 김원웅)교수(사진)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모교 공학교육혁신센터와 창의성센터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金교수는 영화 '맨 오브 스틸', '아이언맨3', '수퍼8',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트랜스포머3'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급 영화



에 사용된 특수효과와 '웨이브릿 터블런스' 신기술을 설명했다.

金교수는 2001년 뉴욕 코넬대를 졸업한 후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캠퍼스에서 컴퓨터사이언스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9~2011년 서스캐처원대를 거쳐 2011년부터 현재까지 UC샌타바버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원행정처와 MOU 교육 및 정보교류 협정

모교는 지난 3월 27일 법원행정처(처장 車漢成대법관)와 '서울대-법원행정처 교육 및 정보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체결에 따라 모교는 법원 재판관과 직원들의 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법원행정처는 모교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류의 첫 행사로 지난 4월 1일부터 모교 인문대학이 주관하는 '인문학아카데미' 교육을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고 있다.

독서프로그램 운영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관장 朴枝香)은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독서프로그램 '서양고전, 인간을 말하다'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테의 '신곡'과 데카르트의 '성찰' 등을 거쳐 니체의 '짜라투스트라'에 이르기까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양고전을 모아 국내 최고 석학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는 강연 및 독서 프로그램이다.

일본 현대미술 총망라 미술관

미술관(관장 權寧傑)은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모교 관악캠퍼스 미술관 전시실에서 일본국제교류기금과 공동으로 '리퀘스트(Re : Quest)-1970년대 이후의 일본 현대미술' 전시회를 개최했다.

일본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작가 53명의 대표작 1백2점을 선보인 이번 전시회는 1970년대의 모노하 및 개념미술, 모더니즘을 계승하면서 심리공간과 팝아트 및 관계적 미술, 최근의 미디어 설치 작품을 망라했다.

좋은사랑만다 결혼해두오

성원회원수 26,104명 (2013년 1월 14일 기준) | 점유율 63.2%, 매출 1위 (주요 4개 업체간 2010년 매출액 기준)

대표이사 김혜정(82入독여독문)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수원·천안·전주·강원·제주·LA·뉴욕·뉴질랜드

매 듀오
www.duo.co.kr

한국대표결혼정보회사
1577-8333

삼우개발 崔赫榮대표

모교에 1억2천만원 기부

삼우개발 崔赫榮대표(사진右)가 모교에 장학기금으로 1억2천만원을 쾌척했다.

모교는 지난 3월 6일 총장실에서 吳然天총장, 崔赫榮대표를 비롯해 발전기금 李昌雨부이사장, 金炯周상임이사, 공과대학 李惠日학장, 金民洙기획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崔赫榮장학기금’ 협약식을 가졌다.

崔대표는 “어린 시절 어렵게 학비를 벌어가며 학업을 이어왔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유가 생기면 사회로 환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여력이 된다면 장학재단을 설립해 경제적



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崔대표가 기부한 금액은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와 전기정보공학부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주)어도 裴正哲대표

모교 병원에 1억원 출연

(주)어도 裴正哲대표와 부인 金善美씨가 지난 3월 5일 모교 병원 함춘후원회(회장 韓圭燮)에 저소득층 환자 지원금으로 1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일식집 ‘어도’를 운영하며 1999년부터 15년간 손님 1인당 1~2천원씩 성금을 모은 裴대표는 총 11억1천5백만원을 함춘후원회에 전달해 4백37명의 환자를 지원했다.

裴대표는 “처음 기부를 시작할 때부터 가족과 직원들의 많은 격려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어려운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진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金善美씨, 裴正哲대표, 모교 丁憲源병원장, 韓圭燮회장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보람있게 살겠다”고 말했다.

裴대표는 모교 병원에서 매년 개최하는 불우환자지원금 마련 자선바자회에 참여해 1천만원 이상의 초밥을 기증했으며, 2011년 7월 청와대 주최 ‘나눔과 봉사의 주인공’ 국민포장 수상 및 국제청주최 ‘아름다운 납세’ 대상을 수상했다.

故 李成炯교수 유가족

학술기금으로 1억원 쾌척

모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故 李成炯(대학원 82-85)교수의 유족이 고인의 유언에 따라 학술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지난 3월 20일 열린 협약식에서는 吳然天총장과 故 李成炯교수 유가족을 비롯해 발전기금 李昌雨부이사장, 라틴아메리카



吳然天총장, 이옥형 씨(故 李成炯교수 동생), 이재진 씨(故 李成炯교수 아들)

연구소 金昌民소장, 李誠勳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이 기금을 ‘李成炯교수 학술기금’으로 지정하고 라틴아메리카연구소의 교육 및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2012년 8월 53세의 이른 나이로

별세한 고인은 모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멕시코 과달라하라지치대 초빙교수, 이화여대 교수 등을 지냈으며 2009년부터 모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로 재직해 라틴아메리카 연구 및 후학 양성에 힘썼다. 〈美〉

제학생의 소리



“나만의 음악을 만들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2000년도에 설립돼 2003년부터 중앙 동아리에 속하게 된 작곡동아리 사운드림(Soundream)입니다. 사운드림의 주 목적은 실용음악 창작이며, 매학기 한 번씩 흥대 앞의 공연장을 대관해 온전히 회원들의 자작곡으로만 구성된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완성도가 뛰어난 곡들은 모아서 사운드림의 음반을 만드는 계획을 해 현재 2집까지 발매됐고 3집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밴드 동아리들과 달리 저희는 신입회원을 모집할 때 오디션을 보고 있지 않으며, 소속 단과대학이나 학번 등에도 전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는 한 기수가 한 팀인 다른 밴드들과 달리 정해진 팀이 있지 않다는 것이고,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연습시간 등이 없습니다. 대신 저희는 한 사람이 새로운 곡을 작곡하면 그 곡을 연주하는 것을 도와줄

각 악기 연주자들이 서로 지원해 곡 별로 팀이 결성되는 형태로 공연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많은 곡을 작곡해본 기존 회원들이 악상을 전개하거나 멜로디를 붙이는 요령, 또는 작곡에 도

는 시퀀서가 다르기에 동아리 방 컴퓨터에는 소나(SONAR), 애플 스투디오(FL Studio), 큐베이스(Cubase), 에이블톤(Ableton) 등 네 가지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며, 각각의 시퀀서마다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스터디 그룹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康鉉雄(기계항공12입)
사운드림 회장

움이 되는 기타나 건반 등의 화성악기를 다루는 법, 마지막으로 시퀀서(sequencer)를 이용해 악기를 녹음하거나 미디(MIDI)사운드를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을 주축해 신입회원들이 작곡에 익숙해지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작곡을 할 때 장르는 잘 가리지 않는 편입니다. 장르별로 사용하

앞서 말씀드린 정기공연 외에도 사운드림은 비정기적으로 많은 공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 사운드림에서 이와 같이 생겨난 뒤 활동하는 밴드의 수만 일곱 팀 정도됩니다. 이 팀들은 서울대학교 또는 타 학교의 팀들과 협연하기도 하며, 기존 밴드들의 곡을 연습해 공연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Sh 수협은행

5천만 모두를 위한 은행



Sh 수협은행은 어촌과 농촌, 도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은행장 : 李周衡(정치학과 76년 졸업, AMP 61기)

정년교수 프로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교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교수 45명의 정년·명예퇴임식이 지난 2월 28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權斗煥교수·국어국문학

66년 모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4년 석사학위, 85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덕여대 교수를 거쳐 81년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부임해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교무처장, 인문대학장, 대학원장, 진단학회장, 한국고전전문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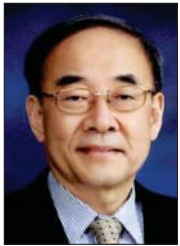
曹南鉉교수·국어국문학

66년 모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5년 석사학위, 83년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건국대 교수를 거쳐 89년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부임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인문대학 협동과정 비교문학 전공주임, 국어국문학과장, 한국현대문학회장 등을 지냈다.



任漢濤교수·독어독문학

70년 모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해 75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3년 독일 라인 프리드리히-빌헬름스 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거쳐 92년 모교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부임해 인문학연구소 연구기획부장·언어연구부장, 독일어문학회 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金永植교수·동양사학

65년 모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해 69년 졸업, 미국 하버드대에서 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7년 모교 화학과 교수로 부임해 2001년 동양사학과 교수로 전환,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협동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 전공주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장, 한국과학사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金南圭교수·철학

66년 모교 철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73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4년 독일 알베르트 루트비히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5년 모교 철학과 교수로 부임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인문대학 교무부학장을 비롯해 철학과장, 인문학연구원장, 한국서양고전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金世均교수·정치외교학

66년 모교 정치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5년 석사학위, 88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9년 모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해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정치학과장, 한국정치연구소장, 여성문제연구소장, 사회과학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朴相燮교수·정치외교학

66년 모교 외교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72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2년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외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3년 모교 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연구부처장, 국제문제연구소장, 정치외교학부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表鶴吉교수·경제학

66년 모교 무역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77년 미국 클라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 경제학부 교수로 부임해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국제경학과장, 세계경제연구소 소장,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아시아 KLEMS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朴明珍교수·언론정보학

65년 모교 불어불문학과에 입학해 69년 졸업, 78년 프랑스 파리제3대학 누벨소르본대 영화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부임해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중앙도서관장, 교육부총장 겸 대학원장, 한국언론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金熙濤교수·화학

66년 모교 화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74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77년 미국 시카고대에서 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97년 모교 화학과 교수로 부임해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자연과학대 교무부학장, 화학·분자공학연구단장,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학술위원장 등을 지냈다.



任正彬교수·생명과학

70년 서강대 생물학과를 졸업해 76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8년 모교 미생물학과 교수로 부임해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유전공학연구소 소장, 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 아태 국제분자생물학 네트워크 회장, 한국미생물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金鉉九교수·물리천문학

65년 모교 전기공학과에 입학해 69년 전기공학과와 71년 응용물리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71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79년 미국 노트르담대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 물리학과 교수로 부임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물성과학연구소장, 한국물리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李相珪교수·물리천문학

67년 모교 천문기상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74년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 천문학과 교수로 부임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대학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물리·천문학부 교수, 자연과학대 천문학과장, 한국천문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朴永淑교수·간호학

65년 모교 간호학과에 입학해 69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4년 석사학위, 91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69년 모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간호사를 시작으로 78년 간호학과 교수로 부임해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간호대학 부학장, 간호과학연구소 부소장, 여성건강간호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崔明愛교수·간호학

66년 모교 간호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73년 모교 대학원에서 간호학 석사학위, 84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군간호사관학교 교관을 거쳐 87년 모교 간호학과 교수로 부임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간호대학 부학장, 간호과학연구소장, 대한기초간호과학회장 등을 지냈다.



閔相基교수·경영학

66년 모교 경제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73년 필리핀 아시아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 76년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7년 모교 경영학과 교수로 부임해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기획실장, 대학원장, 국제지역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申孝澤교수·기계항공공학

71년 모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해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78년 기계공학 석사학위, 82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84년 모교 기계설계학과 교수로 부임해 기계항공공학 분야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관악사 사감, 공과대학 기계설계학과장 등을 지냈다.



李奎烈교수·조선해양공학

65년 모교 조선공학과를 입학해 71년 졸업, 독일 하노버대에서 조선공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94년 모교 산업조선공학부 교수로 부임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서울공대지 편집위원장,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장,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장, 대한조선학회 교육위원장 등을 지냈다.



李健杓교수·조선해양공학

72년 모교 조선공학과를 졸업해 모교 대학원에서 74년 조선공학 석사학위, 77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78년 모교 산업조선공학부 교수로 부임해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장, 공학연구소장, 인사위원회 위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鄭聖進교수·산업공학

68년 모교 응용수학과에 입학해 72년 졸업, 75년 미국 콜로라도대 볼더 캠퍼스에서 응용수학 석사학위, 80년 미국 미시간대에서 산업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 산업공학과 교수로 부임해 산업조선공학 분야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산업공학과장 등을 지냈다.



李吉成교수·건설환경공학

66년 모교 토목공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76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토목공학 석사학위, 82년 자원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 토목공학과 교수로 부임해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토목공학과장,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장 등을 지냈다.



鄭泰鶴교수·건설환경공학

66년 모교 토목공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미국 오리건주립대에서 73년 구조공학 석사학위 및 74년 환경공학 석사학위, 78년 미국 미시간대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 토목공학과 교수로 부임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환경안전연구소장, 재해영양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李銀哲교수·에너지시스템

65년 모교 원자력공학과에 입학해 69년 졸업, 71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76년 미국 매릴랜드대에서 원자력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8년 모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로 부임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연구처장, 원자력공학과장, 한국원자력학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등을 지냈다.



任勝彬교수·조경시스템

67년 모교 건축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석사학위, 미국 버지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77년 모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과 교수로 부임해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협의회장 등을 지냈다.



李茂夏교수·농생명공학

67년 모교 축산학과에 입학해 75년 졸업, 77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2년 미국 위스콘신대 메디슨 캠퍼스에서 식품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8년 모교 동물자원학과 교수로 부임해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한국식품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河鍾圭교수·농생명공학

71년 경상대 축산학과를 졸업, 77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1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4년 모교 축산학과 교수로 부임해 농생명공학 분야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농생대 학생부학장, 농생명공학부장, 한국동물자원과학회장 등을 지냈다.



章洙弘교수·디자인학

69년 모교 응용미술과에 입학해 76년 졸업, 78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5년 미국 로체스터공과대에서 도예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부산대 교수를 거쳐 88년 모교 디자인학부 교수로 부임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디자인학부장, 미술대학장, 200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총감독 등을 지냈다.



崔鍾庫교수·법학

66년 모교 법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72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79년 독일 알베르트 루트비히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 법학과 교수로 부임해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기여했다. 한국법사회장, 세계법철학회 한국학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대학원동창회장을 맡고 있다.



禹漢鎬교수·국어교육

68년 모교 국어교육과에 입학해 75년 졸업, 79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91년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북대 교수를 거쳐 95년 모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부임해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사범대학 교무부학장, 국어교육연구소장, 국어국문학회장 등을 지냈다.



마르티네즈 교수·불어교육

69년 프랑스 브장송대 인문학부를 졸업해 73년 동 대학에서 석사학위, 88년 프랑스 파리5대학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파리8대학 언어학과 교수를 거쳐 2010년 모교 불어교육과 교수로 부임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지부티 공화국 대학 교육과 연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李景植교수·역사교육

65년 모교 역사교육과에 입학해 69년 졸업, 72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4년 연세대 대학원에서 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청주사대와 성신여대 교수를 거쳐 85년 모교 역사교육과 교수로 부임해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역사교육과장, 교육종합연구원장, 역사교육연구회장 등을 지냈다.



朴孝鍾교수·윤리교육

74년 카톨릭대를 졸업해 76년 동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79년 모교 대학원에서 국민윤리교육 석사학위, 86년 미국 인디애나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99년 모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부임해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제42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 저작상(사회과학분야) 등을 수상했다.



李愛珠교수·체육교육

65년 모교 체육교육과에 입학해 69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1년 체육교육 석사학위, 99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 체육교육과 교수로 부임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민주화 교수협의회 회장, 한국체육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9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에는 보유자로 지정됐다.



李基榮교수·소비자이동학

66년 가정교육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3년 가정관리학 석사학위, 87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83년 모교 가정관리학과에 교수로 부임해 소비자이동학 분야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생활과학대학장,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姜三植교수·제약학

65년 모교 약학과에 입학해 69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3년 약학 석사학위, 79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 생약연구소 교수로 부임해 2001년 제약학과 교수로 전환,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천연물과학연구소장, 한국생약학회, 국가한약재평가 기술과학회 연구사업단장 등을 지냈다.



朴世源교수·성악

66년 모교 성악과에 입학해 72년 졸업, 79년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 음대에서 성악 석사학위를 받았다. 92년 모교 성악과 교수로 부임해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음악대학 성악과장, 오페라연구소장,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예술총감독, 서울시 오페라단장 등을 지냈다.



金永旭교수·기악

70년 미국 커티스 음대 기악과를 졸업했다. 88년 독일 데트몰트음대 교수를 시작으로 99년 울산대 음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2003년 모교 음대 기악과 교수로 부임해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면서 모교 음악대학 학장, 서울 예술의전당 음악예술감독 등을 지냈다.



金炯培교수·기악

69년 미국 피바디 음대 피아노과를 졸업했으며 71년 미국 줄리아드 스쿨에서 석사학위, 81년 피바디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4년 모교 음대 기악과 교수로 부임해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음악대학 부학장 겸 음악과장, 음악대학 기악과장 등을 지냈다.



金光顯교수·의학

66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2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5년 의학 석사학위, 80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충남대 교수를 거쳐 82년 모교 의학과 교수로 부임해 의학 분야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이비인후과학교실 주임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尹容範교수·의학

66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2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5년 의학 석사학위, 80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 의학과 교수로 부임해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보건진료소장, 의과대학 발전후원회장, 대한소화기학회 회장,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朴明姬교수·의학

67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3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6년 의학 석사학위, 81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 의학과 교수로 부임해 의학 분야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검사의학교실 주임교수, 대한진단검사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朴聖會교수·의학

67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5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9년 의학 석사학위, 83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83년 모교 의학과 교수로 부임해 의학 분야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병원 병리과장, 특수생명자원센터 소장, 의학연구원 장기이식연구소 소장 등을 지냈다.



徐維憲교수·의학

67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3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6년 의학 석사학위, 81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 의학과 교수로 부임해 의학 분야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신경과학연구소장, 과학기술부 치매정복창의연구단장, 한국뇌연구원 초대 원장 등을 지냈다.



金容鎔교수·의학

71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7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1년 모교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 83년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5년 모교 의학과 교수로 부임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등을 지냈다. 현재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黃琪源교수·환경조경학

66년 모교 건축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75년 모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 78년 미국 하버드대 설계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 환경조경학과 교수로 부임해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환경대학원 부원장·원장, 한국조경가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13년 3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관 개원
암센터/뇌신경센터 진료 개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더 큰 병원으로 앞서갑니다

www.snubh.org
1588-3369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GANG HOSPITAL

if product
design award
2013

reddot design award
best of the best 2013

New way of mo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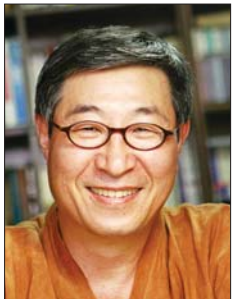
Generate your own power / Go forward by pedaling & throttle / Convenient, clean, chainless and efficient / Roll when folded - no need to carry

mandofootloose

콩트 릴레이

어느 겨울의 삽화

金 碩 禧(불문72-76)작가·번역가



누구에게나 나뭇의 사연과 함께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물건 하나쯤 있게 마련이다. 가령 아주 오래 전에, 지금은 얼굴도 아련하고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어느 한때의 애인한테서 받은 생일카드를 책갈피에 끼워둔 채 이따금 꺼내어 보며 추억에 잠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반 때 몇몇 친구와 영원한 우정을 기억하며 낙엽 지는 교정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빗바랜 그대로 간직한 채,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옛 벗들의 기억

한 마디쯤 내뱉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도대체 저게 뭐지? 무엇을 그린 그림이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게는 대답할 말이 없다.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무엇을 그린 그림인지, 나 자신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림이라고 말은 했지만, 우편엽서 열 장 크기의 화폭에 그려진 것이라고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하얀색 물감이 덕지덕지 덧칠된 터치만이 약간의 음영을 띠고 있을 뿐, 거기엔 우리가 흔히 구도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색조라든가 하는 용어로

는 나무층계를 올라간 입구부터 시작해 벽에 내걸린 크고 작은 액자들 속에서 이 그림은 화장실로 통하는 문 옆, 베토벤의 검은 데스마스크가 내려다보는 바로 아래 걸려 있었다.

그날 화장실에 가다가 이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무척 당혹스러웠다. 하얀색 물감만 덕지덕지 덧칠된 화폭. 나는 그것을 그림이라고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뭔가를 그리다 만 것 같은, 아니 뭔가를 그리기 위해 바탕에 하얀색만 잔뜩 칠해놓는 듯한 그 화폭 앞에서, 나는 작가가 그 그림을 통해 기존의 틀을 경멸 또는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단일색으로 온통 뭉개버린 화폭, 그것은 젊음의 권리였다.

그러나 이튿날 그 다방에 다시 들렀다가 그 그림을 다시 보았을 때, 나는 웬지 모를 불쾌감이 위벽을 긁으며 돌아 오르는 것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도대체 무엇을 담아낸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림 앞에서 나는 연거푸 고개를 가웃거리고 혀를 차면서 괜히 조바심을 태웠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그 그림 앞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짜증을 내는 것 같았다. 내 생각에 화가는 그림 뒤에 숨어서, 그 그림 앞에서 안달하는 관객들은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어쩌면 그는 실제로 다방 안 어느 자리에 뒷짐 지고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쳐놓은 땀에 걸려들어 허우적거리는 먹이들을 날름날름 즐기고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처음엔 그림에다 먹물이나 확 뿌려버릴까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생각을 바꿔먹었다. 하룻밤을 꼬박 굴리한 끝에 나는 그 그림을 흠쳐내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돌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화가의 얼굴에 당혹과 낭패의 그림자를 씌워 주고 싶었다. 이 같은 심리는 그 당시(암울하기 이를데 없는 유신 초기) 우리 또래가 엇비슷하게 겪었던 치기·분노·절망·열정

따위의 감정들과 뒤섞이면서 마치 운명적인 욕망처럼 내 속을 끓여댔다.

결과만을 털어놓자면 나의 절도행위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 짧은 글에서 자초지종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성공한 뒤 나를 도와준 친구와 밤늦도록 술을 마시며 쾌재를 불렀던 기억이 새롭다.

그리하여 내 손에 들어온 이 그림은, 그 후 하숙이라도 옮길 때면 가장 먼저 챙기는 재산목록 제1호가 됐고, 내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아내가 마치 내 분신이라도 되는 양 보살폈으며, 장물에는 주인이 따로 없다는 도덕률을 가진 몇몇 친구들의 술한도발과 노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오늘 날까지 무사히 내 곁에 머물러 있다.

그림 한쪽 귀퉁이에는 이름 하나가 조그맣게 적혀 있다. 박항선. 지금은 눈을 들어 대야 간신히 관독할 수 있을 만큼 희미하게 퇴색해버렸지만, 그 이름 석 자마저 남아

있지 않다면 나는 화가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 채, 어쩌면 그림을 흠친 행위마저 망각의 깊은 늪 속에 내던져버렸을지 모른다. 그 이름이 남아 있기에 이 그림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었고, 내 것이 아니기에 이 그림은 내 젊은 날의 치기 어린 추억과 함께 언제나 소중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 나는 다만 그림 한 귀퉁이에 서명된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뿐 얼굴조차 본 적이 없고, 그 이름을 다른 데서 읽거나 들은 적도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 진눈깨비가 폭설로 변해 쏟아지던 저녁이었다. 몇몇 글 쓰는 친구와 서울 인사동의 한 술집에 갔다가 그림 그리 는 친구들을 만나 함께 어울리게 되었는데, 그 좌중에는 시골에서 오랜만에 올라왔다는 낯선 사내가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끼어 앉아 묵묵히 술잔을 비워내고 있었다. 열큰술 술과 잡다한 대화가 몇 순배 돌고 난 뒤 그 사내는 아무래도 밤차를 타야겠다면서 먼저 자리를 뒀다. 감정 가방 하나 달랑 걸머진 그의 모습이 술집 문밖으로 사라지자 내 맞은편에 앉은 화가 친구가 마치 먼 과거를 길어 올리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참 별난 친구지. 뭐랄까, 스스로 자신을 저주해버린 천재라고나 할까..”

나는 친구의 표현이 제법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학교에 다닐 적만 해도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 뛰어났었지. 1학년 때 벌써 국전에서 특선으로 뽑힐 정도였으니 말이야.”

그렇게 재능이 남달랐던 그가 하루아침에 그림을 버렸다는 것이다.

“74년이었던가, 우리 몇이서 동인전을 연 적이 있었어. 김형도 보았을지 몰라. 학림다방에서 있었으니까.”

나는 귀가 솔깃했다. 나는 호기심으로 눈을 빛내며 앞자리의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는 분명 내가 절도행각을 벌인 전시회를 말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참으로 과격적인 작품을 내놓았지. 화폭에 온통 하얀 물감만 덧칠된 그림이었는데..”

아아, 나는 하마터면 큰 소리로 신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림 자체가 걸작이기도 했지만, 거기에 얹힌 사연이 한결 충격적이지. 원래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어. 그런데 거기에서 마음속의 주름살 하나까지 다 표현해내느라 손질을 더하고 붓질을 더하고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얀 바탕만 남게 되더라는 거야. 그뿐이 아니야. 그는 이런 말도 했었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이해하려면 걸 그림 속의 밑그림까지 꿰뚫어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건 아마 신이나 가능할 일이라고. 우린 그의 천재성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단순히 장난기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 그는 우리 앞에서 공언을 하기까지 했어. 만약에 그 그림을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림을 흠쳐가고 말 것이라면서) 자기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겠노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줄 알아? 전시회가 끝나던 날 밤에 그 그림이 갑작같이 사라져버린 거야. 처음엔 누군가가 그를 끌어주려고 장난이라도 친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그 그림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거든.”

나는 술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어둠으로 뒤덮인 도시에 하얀 눈만이 하염없이 쏟아져 쏟아지고 있었다.

“

자기가 그린 그림을 이해하려면

걸그림 속의 밑그림까지

꿰뚫어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건 아마 신이나 가능할 일이라고.

만약에 그 그림을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겠노라고.

”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서양화02-07)

을 새삼 되새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 뿐인가. 망가진 만년필 한 자루, 녹슨 열쇠고리 하나, 걸장이 뜯겨져 나간 젊은 날의 애독서 한 권도 사람에게 따라서는 거기에 얹힌 사연과 더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

누군가 나더러 당신에게도 그런 게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다행히 그렇다고 대답하리라. 내가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은 조그만 그림 한 점이다. 나는 이 그림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바라보곤 한다. 바로 내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직접 공들여 만든 액자에 담긴 채 내 서재 한구석에 걸려 있다.

그러나 이 그림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적잖은 곤혹감을 느끼곤 한다. 내가 곤혹감을 느끼는 데에는 물론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나를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이 그림을 보고는, 호기심인지 비아냥인지 알 수 없는

부르는 그림의 요소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것이다. 아니다. 좀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얀색으로 온통 덧칠되고 덧발라진 걸그림 속에는, 그 하얀색 덧칠로 말미암아 지워져버린 애초의 밑그림이 아련한 기미로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구도, 어떤 형상, 어떤 색채를 가졌었는지는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이 그림이 내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은, 죄송한 말이지만 절도의 결과다. 바깥 말하면 이 그림은 장물이라는 얘기가.

그게 언제였던가. 벌써 40년 가까이 지난 어느 해 가을이었다. 그때 내가 다니던 대학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었고, 그 캠퍼스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둔 학림다방에서는 몇몇 미대생들의 동인전이 열리고 있었다. 내가 이제껏 간직하고 있는 그림도 그때 전시된 작품들 가운데 하나였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만, 빼껴거리

“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가 건강검진의 새지평을 열어갑니다 ”

SNUH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EALTHCARE SYSTEM GANGNAM CENTER

건강진단 프로그램 안내

기본	건강계획	정밀	프리미엄
· 청소년 · 성인	· 소화기(공통) · 심장(남) · 호흡기(남) · 심장호흡기(여) · 유방갑상선(여)	· 주요암 · 뇌 · 심장혈관	· 프리미엄(남성) · 프리미엄(여성)
숙박건강 검진	특화 프로그램	파트너스 프리미어 CEO	
· 1박2일 · 2박3일	· 부정맥 · 전립선 · 신장 · 비만 · 금연 · 근골격(경추, 요추, 경요추, 무릎) · 알레르기 · 치매예방 · 여성호르몬 · 예비부부 · 비타민(영양)	· 1년동안 지속적인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 전담주치의/간호사 지정서비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38F~40F 예약상담: 02-2112-5500 <http://healthcare.snuh.org>

SEJONG TELECOM Onse telecom

세종과 온세는 하나로, 고객 기쁨은 두배로

PLUS 혜택!
지금 스노우맨
가입하면 없는 것 3가지!

- ✓ 가입비(12,000원) 면제
- ✓ 유선비(5,500원) 면제
- ✓ 부가서비스 없음

Samsung
GALAXY Ace Plus (SHW-M460D)



“단말기 가격, 높은 통신비...
비용부담으로 스마트폰 구입 망설이고 있으신가요?”

지금 스노우맨에서는
**삼성 갤럭시폰을
월 2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알뜰스마트28

갤럭시에이스플러스 가입 시 월 납부금액 : 29,940원 (부가세 포함금액)

☎ 150분 ✉ 250건 📶 100MB + 올레 WiFi 무료

알뜰스마트38

갤럭시에이스플러스 가입 시 월 납부금액 : 38,740원 (부가세 포함금액)

☎ 200분 ✉ 350건 📶 500MB + 올레 WiFi 무료

※ 정책 변경 시 월 납부금액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신청을 권장합니다!

- ✓ 내 아이 첫 폰, 부모님 휴대폰 장만을 원하시는 분
- ✓ 업무상 통화량이 많거나 수신량이 많아 세컨드폰이 필요하신 분
- ✓ 휴대폰 약정이 끝나거나 휴대폰 요금부담 때문에 걱정이신 분

snowman



스노우맨 고객센터 : 1688-9300
www.snowman.co.kr

100% 우리고기
농협목우촌

100% 우리고기만을 사용하는 농협목우촌 주부9단이
더 좋아진 품질과 새 얼굴로 인사드립니다.



주부9단의 새얼굴

“더 좋은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한라 제주한라대학교
CHEJU HALLA UNIVERSITY

국제화를 향한 미래비전을 실현하는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화 인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World Class College" 선정
- "국내최초"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
- 5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선정
-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 전국 전문대학 중 해외취업자수 1위
- 세계명문대학들과의 공동교육과정 및 복수학위제 운영



www.sy.ac.kr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교육역량 우수대학**

장학금 총액 **600억원**, 학생 1인당 장학금 평균 **238만원**

2012년 취업률 수도권(강원 포함) **10위**

신수도권 교육도시 **원주의 중심대학**



“명품 전문인력의 산실”
상지영서대학교



최 석 식 총장
(행정대학원 1983入)



동 정

수 상

▲安輝睿(고고인류61-67 모교 고고미술학과 명예교수·국외소재문화재단 이사장)=지난 3월 8일 제19회 용재학술상 수상.

▲金鍾勳(건축69-73 한미글로벌 회장)=지난 3월 12일 한국공학한림원으로부터 제17회 한국공학한림원 대상 수상.

▲金仙大(경대원72졸 한국공군전공상유공자회 부회장)=지난 2월 26일 한국공군전공상유공자회 총회에서 공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로 공군참모총장 감사패 수상.

▲廉明培(경제75-79 충남대 교수)=지난 3월 4일 제47회 남세자의 날 기념식에 조세·재정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옥조근정훈장 수훈.

▲權俊壽(의학78-84 모교 정신과학교실 교수)=지난 3월 21일 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제6회 아산의학상(임상의학부문) 수상.

▲李碩宰(철학86-90 모교 철학과 교수)=지난 3월 16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영국철학사학술지가 주관한 제2회 로저스상 수상.

▲李寅圭(제어계측86-90 고려대 교수)=지난 3월 12일 한국공학한림원으로부터 제17회 '젊은공학인상' 수상.

▲李炫九(대학원08졸 까사미아 회장)=지난 3월 20일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석탑산업훈장 수훈.

인 사

▲睦堯相(법학55-61 前국회의원)=지난 3월 27일 대한민국헌정회 정기총회에서 제18대 회장에 재선출.

▲金基完(법학59-64 통일감정평가법인 회장)=최근 한국감정평가학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회장에 선출.

▲金文煥(법학65-69 前국민대 총장)=지난 3월 21일 MBC 대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선출.

▲金尙均(사회사업66-70 모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지난 3월 20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金鐘燮(사회사업66-70 스펙코·삼익악기 회장·AMP동창회장·본회 부회장)=최근 서울동성고동창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임.

▲邊龍植(정치68-75 조선일보 발행인)=지난 3월 25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이사에 선출.

▲郭贊浩(신대원69-71 민주평통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지난 3월 1일 대한언론인회 원로위원회 간사에 선임.

▲崔炳敏(외교71-75 깨끗한나라 회장)=지난 2월 28일 임기 3년의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제31대 회장에 취임.

▲尹錫厚(농화학73-77 한국식품연구원장)=지난 3월 1일 미국유지화학회 생물공학위원회 위원장에 선출.

▲李民熙(신대원73-75 前KBS미디어 사장·사라의 복지재단 상임이사)=지난 2월 14일 임기 2년의 사라의 복지재단이사장에 취임.

▲吳長洙(화학공학74-78 LG하위시스 부사장)=지난 3월 15일 LG하위시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선임.

새 정부 장·차관에 동문 30여명
헌재 재판관에도 동문 지명

지난 3월 장관급 인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崔文基(응용수학69-74)KAIST 교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申齊潤(경제77-81)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장에 金東亮(행대원84-86)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임명됐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李敬在(사회60-64)前국회의원을 지명했다.

차관급 인사를 통해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李錫駿(경제78-82)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에 李相睦(AIP 35기)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교육부 차관에 羅承日(농업교육81-85)모교 식물생산과학부 교수, 외교부 제1차관에 金奎顯(치의학81졸)외교통상부 차관보, 제2차관에 趙兌烈(법학75-79)경기도 자문대사, 통일부 차관에 金南植(외교79-83)통일부 기획조정실장, 국방부 차관에 白承周(SPARC

22기)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안전행정부 제1차관에 朴贊佑(행대원84-87)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趙顯宰(행대원86-88)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농림축산부 차관에 呂寅弘(농학76-82)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에 金奎弘(행대원82-84)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환경부 차관에 鄭然萬(사회교육79-83)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鄭賢玉(행대원88졸)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朴麒豐(영어교육75-79)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제2차관에 呂洞九(ACPMP 7기)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을 발탁했다.

외장장 인사에서 국세청장에 金應中(행대원82-84)중부지방국세청장, 통계청장에 朴炯秀(경제86-90)한국조세연구원 기

획조정실장, 검찰총장에 蔡東旭(법학77-81)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방위사업청장에 李庸傑(경제76-80)국방부 차관, 중소기업청장에 韓正和(경영73-77)한양대 교수, 기상청장에 李一秀(ACAD 26기)기상청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李忠在(ACPMP 8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해양경찰청장에 金錫均(행대원92-94)해양경찰청 차장을 기용했다.

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 洪允植(법학75-79)국무총리실 국정운영1실장, 국무2차장에 高英先(경제81-85)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李浩永(지리교육85졸)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鄭燦宇(국제경제82-87)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금융감독원장에 崔守鉉(생물교육81졸)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임명됐다.

한편 헌법재판소 소장에 朴漢徹(법학71-75)재판관, 재판관에 徐基錫(법학73-77)서울중앙지법원장, 趙龍鎬(AIP 35기)서울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kitis 키티스산학연정보사는
우리나라 학술연구 활동에 필수적인
IEEE **IHS** 정보의 서비스 주관사로서
국가 R&D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IHS & IEEE
Authorized Dealer in KOREA

kitis 키티스産學研情報社
KITIS Info. Company
<http://www.kitis.co.kr> TEL 02-3474-5290(代)

대표 홍영표 (국제대학원 GLP 21기)

행사



▲吳京海 (의류79-83 한국중이접
기협회 상근부
회장)= 지난 3
월 11일 한국중
이접기협회 제8
대 회장에 선출.



▲**金昌均**(경제80-84 조선일보 논설위원·본보 논설위원)= 지난 3월 5일 조선일보 편집국 정치담당 에디터 겸 부국장에 선임.



▲金明仲 (HPM 6기) 前국민건강보
 험공단 안양동
 안지사장)= 지
 난 3월 1일 협
 성대 교양교직학
 부 전임교수에
 임명.



주년 기념 행사에서 ‘최고와 전망’을 주제로 특강.
▲俞東濬(잠사56-60 先農會 회장·수원지부동장회장)= 지난 3월 14일 한국마사회 간담회에 참석, 승마 활성화에 대해 의견 나눔.

▲**李在昌**(법학56-60 새마을운동
중앙회 회장)= 지난 3월 11일 새
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열린 몽
골·라오스 지도자 새마을교육 입
교식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주제로 기조강연.



▲李秉錫(회화58-62 한국미술협
회 고문)=지난
3월 2~6일 서
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
서 전시회 개최.



▲權 誠(법학60-66 언론중재위원장)=지난 3월 4일 서울 한국프

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윤영위원 9명과 시정권고위원 7명 선출.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 지난 3월 28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법제처 曹正燦법령정보관리원장을 초청해 월례발표회 개최.



지 문화와 시대 쟁점'(문화과지성사刊) 출판기념회 및 정년축하연 개최.

▲張萬基(경대원66-68 인간개발연구원장)=지난 3월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이영주 이사장을 초청, '시진핑 시대 권력구조의 특징과 향후 10년의 과제'를 주제로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개최.



는다: 성장 환경과 발달 모습'을 주제로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시간동 갤러리현대에서 신작 40여 점을 출품해 ‘생명의 노래-산수間’ 개최.



개최.

▲李相起(서양사학81-87 아시아
N 대표·본보 논
설위원)은 지난
3월 3~7일 쿠
웨이트를 방문해
알 아라비 포럼
에서 기조연설한
후 무하마드 알압달라 알사바 쿠
웨이트 공보부 장관과 대담.

▲郭賢珠(성악84-88 국민대 교수·소프라노)=지난 4월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슈트라우스, 드뷔시 등의 작품으로 독창회 개최.

▲**류진화**(기악86-90 단국대 강사·피아니스트)= 지난 4월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피아니스트 송윤종(기악93-97 성신여대 강사)·동문 등과 함께 슈베르트, 베토벤 등의 작품으로 제6회 Piano Forever 정기연주회 개최.



■ 삼가 명복을 빕니다

- ▲裴炳霄(의학47쪽 前서울적십자병원장)=3월 18일 별세(91세)
- ▲尹世元(물리47쪽 前선문대 총장)=3월 16일 별세(91세)
- ▲李樂周(기계공학47-51 모교 명예교수)=3월 17일 별세(88세)
- ▲李晚榮(전기공학48-52 前한양대 부총장)=3월 19일 별세(89세)
- ▲河大敦(정치53-57 前국회의원)=3월 23일 별세(78세)
- ▲李爽鎔(행정60쪽 前국회의원)=3월 3일 별세(75세)
- ▲朴載冕(건축56-60 前현대건설 회장)=3월 26일 별세(75세)
- ▲韓淑元(건축56-61 前부림건축 소장)=3월 2일 별세(76세)
- ▲盧二鉉(법학56-62 前기업은행 전무)=3월 8일 별세(76세)
- ▲尹以欽(종교60-64 모교 명예교수)=3월 20일 별세(73세)
- ▲李運珩(건축65-69 세아그룹 회장)=3월 10일 별세(66세)
- ▲李桂官(약학70쪽 환인제약 부회장)=3월 18일 별세(67세)
- ▲安東彬(건축69-73 대양테크 대표)=3월 4일 별세(63세)
- ▲李대원(언어91-95 경향신문 기자)=3월 8일 별세(40세)
- ▲高源駿(AMP 14기 前국회의원)=3월 5일 별세(70세)
- ▲李錫周(AMP 21기 前중소기업중앙회장)=3월 9일 별세(77세)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 e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서울대학교 동문과 자녀분들께
최고 20% 가입비 혜택을 드립니다.

엔노블은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협력하여
동문 및 자녀분들을 위한 결혼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결혼정보회사, 엔노블에서 특별한 혜택으로 모시겠습니다.

-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약대, 성균관대 중등학회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단독 제휴사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KBS TV가이드 추천 “BEST 결혼정보회사”
- 경향신문 유망브랜드대상, 2012 모범기업인대상 “국회보건복지위원장상” 수상
- 성훈주의 - 1년 회원기간 중 만남횟수 제한이 없는 멤버십 회원제
- 철저한 3 : 1 비공개 회원관리 ■ 다채로운 노블레스 파티 이벤트
- 부산직영지사 및 미국 4개 협력지사 운영 ■ VVIP, 전문직 전담팀 운영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N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서울본사 | 서울지 강남구 신사동 550-16 삼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마스크 4006호
 [뉴저지지사] 263 BROAD AVE PALISADE PARK, NJ [맨하탄지사] 369 7TH AVE 2ND FL, NEW YORK NY 10001 [플러싱지사] 150-19 NORTHEM BLVD 4TH FL FLUSHING NY 11354

www.reachapp.co.kr

리치앱만 있으면 OK!!

이제 밖에서 셔틀버스를 기다리지 마세요
리치앱 스마트폰 기반으로 셔틀버스 도착 알람을 받는 신개념 서비스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약속합니다.



김영우와 함께하는 리치앱!!
아이들을 우리의 최강경이다.

스마트폰 기반의 생활 밀착형 위치알림 서비스!!

셔틀버스 위치를 GPS로 추적하여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알려줍니다.

- ▶ 학원(기관)은 셔틀버스의 효율적 운행관리
- ▶ 원생에게는 셔틀버스 이용의 편의성
- ▶ 학부모에게는 자녀 보호서비스



(주)C.F.Y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89-319 아이에스비즈타워 1405호 TEL. 02.333.6770 FAX. 02.333.6771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서울우유 주문신청 및 고객센터 : 080-021-6656 (수신자 부담)

서울우유협동조합

뜨는 순간 놀라고 뜨는 순간 더 놀랍다!

뜨을 때 묻어나지 않는 발수리드 기술과
등백 든 과일의 신선함으로
당신을 놀라게 할 단 하나의 요구르트



뚜껑에 안 묻어요! 국내 최초의 발수리드 기술로 요구르트 뚜껑에 내용물이 묻지 않아 깔끔하고 깨끗해요



슈퍼스타 K4 우승자 로이킴

좋은 요구르트는 보면 안다-
목장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요구르트

LOTTE CHEMICAL

사람과 기술이 만나
하나의 행복을 그립니다
롯데케미칼

Draw Your Happiness

신 간

■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

— 鄭寅錫 지음



한 국트랜스퍼스널학회 鄭寅錫(교육 51-55) 고문이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빅토르 프랑클의 의미 심

리학을 소개했다.

삶에 지쳐 있고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 실업신경증, 절망과 자포자기, 무력감에 직면해 있을 때, 또는 일상생활에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지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어서 허무감, 소외와 고독에 빠져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아울러 살아야 할 이유와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해준다. 〈학지사판·값 14,000원〉

■ 기독교와 서양문명

— 林熙完 지음



건국대 사학과 林熙完(사 학 59-65) 명예교수가 기독교가 서양문명과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해 왔는가를 추적해 기독교의 어제와 오늘을 다룬 역사저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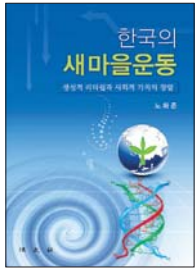
林명예교수는 기독교가 서양문명의 정체성에서 빼놓아서는 안 될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설명한다.

서양문명과과의 긴밀한 역사적 관계 속에서 각 시대별로 전개되는

기독교의 역사적 발전과정의 특징들을 읽을 수 있다. 〈그리심판·값 37,000원〉

■ 한국의 새마을운동

— 盧化俊 지음



모교 행정대학원 盧化俊(섬유공학 61-65) 명예교수가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연구한 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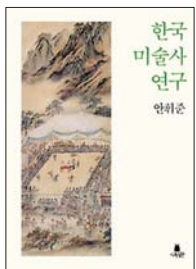
펴냈다.

盧명예교수는 우리 사회가 1970년대에 비해서 크게 성장하고 발전한 것은 사실이나, 사회적 가치창발의 중요성은 현재 사회에서도 여전히 높다고 설명한다.

자제조직화와 창발의 개념을 적용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새마을운동에서 어떻게 사회적 가치가 창발했는지 살펴본다. 〈법문사판·값 20,000원〉

■ 한국 미술사 연구

— 安輝濬 지음



한국 미술사학 교수로 30여 년의 강단 생활을 마치고 2006년 정년 퇴임한 모교 고고미술학과 安

輝濬(고고인류61-67) 명예교수의 마흔 번째 책.

이 책을 읽는 것은 미술사학의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대가의 현재적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 수십 년간 한국 미술사학계에 몸담으며 이곳의 생태를 관찰해온 사람이 느끼는 문제점,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문제의식은 무엇인

가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사회평론판·값 35,000원〉

■ 범죄의 추억

— 崔尙圭 지음



한국 법생물학 분야의 일인자인 崔尙圭(동물63-67) 박사가 풀어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생생

한 현장 이야기.

고문과 강압수사에서 과학수사로 전환되던 시기의 현장 최일선에 서서 우리나라 초기 과학수사의 정착과 발전 과정을 몸소 체험하고 이끈 저자의 생생한 체험이 담겨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사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과학수사가 적용되었는가를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다. 〈청어람판·값 12,500원〉

■ 누가 미래세력인가

— 裴仁俊 지음



2003년부터 동아일보에 '배인준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裴仁俊(철학 70-74 본보 논설위원) 주

필이 첫 칼럼집 출간 이후 6년간 연재한 1백50여 편 가운데 1백여 편을 골라 책으로 묶었다.

이 책은 盧武鉉정부 말기부터李明博정부 5년, 그리고朴槿惠 18대 대통령의 출발선까지 정치, 경제, 남북문제 이슈를 다뤘다. 저자는 “안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밖으로는 글로벌 ‘경

공연

■ 權世娟 독창회

— 4월 28일 금호아트홀



프랑스가 곡연구회 정회원인 메조소프라노 權世娟(대학원 02-05) 동문(사진)이 4월 28일 오후 3시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독창회를 갖는다.

權동문은 이날 드뷔시, 라벨 등의 작품을 연주하며 관객과 호흡한다. 〈공연문의: 예인에술기획 586-0945〉

■ 金正은 첼로 독주회

— 4월 29일 금호아트홀



첼리스트 金正은(기악 00-04) 동문(사진)이 4월 29일 오후 8시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첼로 독주회를 개최

한다.

보블리스 과르넷 멤버로 활동중인 金동문은 이날 보케리니, 히나스테라, 브람스 등의 작품을 공연한다. 〈공연문의: 예인에술기획 586-0945〉

전시

■ 李春基 추모 10주기展

— 4월 17~26일 한벽원갤러리

서울산업대와 전주대 교수를 지낸 李春基(회화55-60) 동문의 작고 10주년을 맞아 추모전이 열린다.

오는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종로구 팔관동 한벽원갤러리에서 동양회화와 서양추상화의 전통을 결합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故 李春基동문은 월간 ‘미술세계’ 3월호에 표지작가로 소개된 바 있다. 부인은 서울미협 회원인 金載姪(회화56-60) 동문. 〈전시문의: 한벽원갤러리 732-3777〉

■ 木佛 張雲祥의 예술세계

— 4월 17일~6월 23일 이천월전미술관

국전 심사위원, 동덕여대 교수, 미술대학동창회장 등을 역임한 木佛 張雲祥(회화46-51) 화백의 31주기 맞아 기획전이 열린다.

오는 4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경기도 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서 ‘절대미를 꿈꾸다’를 주제로 전시회가 진행된다.

故 張雲祥동문은 동양화가 月田 張潤聖화백의 제자이다. 부인은 미대동창회장을 역임한 李信子(응용미술 50-55) 동문. 〈전시문의: 이천시립월전미술관 031-637-0033〉

쟁과 협력’에 다 성공해야 한다”며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을 이런 미래로 이끌 능력과 의지, 책

임감과 희생정신이 있어야 비로소 미래세력”이라고 역설한다. 〈프리뷰판·값 15,000원〉



공해도 고갈도 없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깨끗한 지구를 위해

한화가 미래 에너지 태양광으로
더 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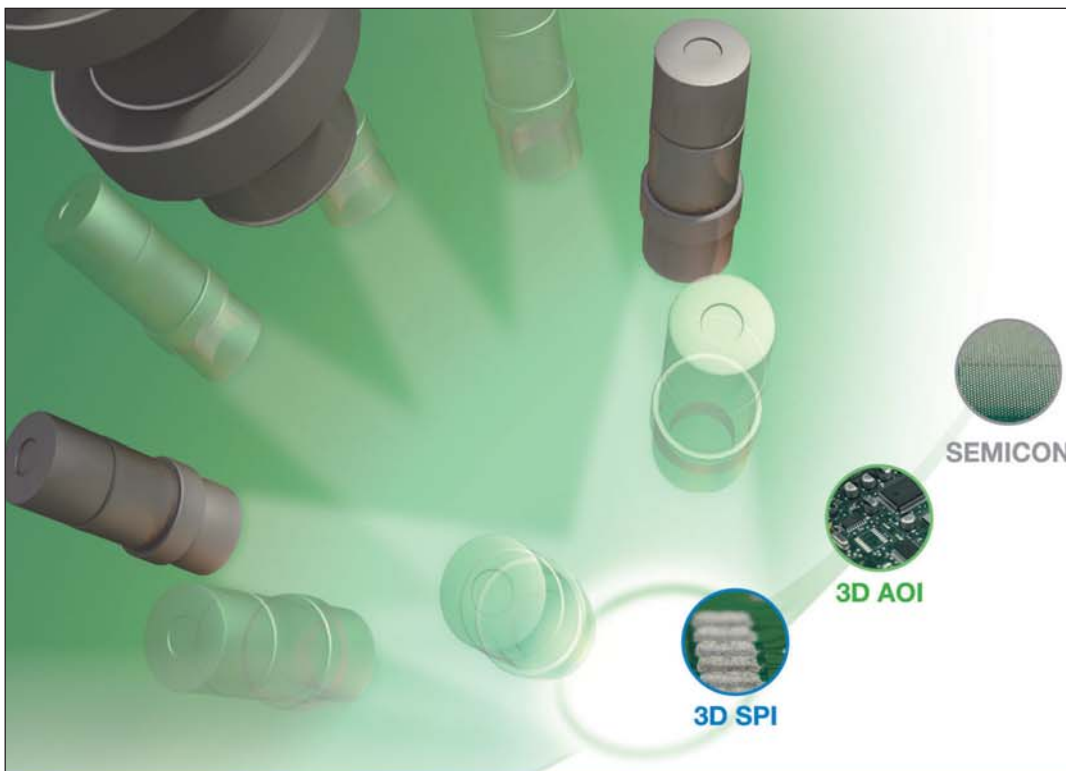
우리의 가슴 속엔 내일의 해가 함께 합니다

태양처럼 한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대학원 총동창회 제31대 임원

- 고 문 : 김주환 지현택 김찬숙 양원식
- 명예회장 : 김병찬 이재일
- 회 장 : 박건배
- 부 회 장 : 김재영 노수영 안창영 이경수 이종엽 김철수 허윤희
안성훈 이원균 조용진 최명진 김기달 유석천 권태호
백승진 백철호 박희운 계용신 김훈재 문형주 이철민
한성희 한 영 김민겸 이재천 주성재 류홍열 엄태완
이상복 이성원 김기성 김용식 이시혁 임종호 정상철
조민선 김용호 박덕영 오지연 윤정태 전해림 이삼선
장복숙 장소희 김병호 박경희 서용석 손윤희 신동열
이운상
- 상임이사 : 박상현 한세희 김 욱 박영채 설양조 안석준 윤석채
홍양표 김주훈 박상섭 박지훈 배성빈 양승욱 허수복
김양수 박현주 한동현 박정현 안준현 이창석
- 이 사 : 길대현
- 감 사 : 황의강 백순지 홍예표



빠르게 진행되는 글로벌 스마트 혁명의 숨은 주역으로 활약하는
3차원 측정검사 시장의 Global Standard, 고영테크놀러지

- SMT 생산공정용 3D 검사장비 토털 솔루션 보유
- 반도체 후공정 검사장비 시장에 최초로 3D 기술 도입
- 파괴적이며 차별화되는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가치 창출



(본사)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90 한라시그마밸리 14,15층
Tel. 02-6343-6000 Fax. 02-6343-6001 Homepage. www.kohyoung.com

(주)고영테크놀러지
Korea · America · China · Europe · Japan · Singapore



Eco-Friendly Auto Parts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와이어링 하네스의 기능 향상으로 친환경 고연비 자동차 첨단기술을 선도하겠습니다.

Global Top EEDS (Electrical Electronic Distribution System)

메이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유 라 코 퍼 레이션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 ■스마트 정션박스(Smart Junction Box) ■차량통신시스템(Invehicle Network System)
■자동차 전장모듈(Electronic Module) ■고전압 HEV 커넥터(High Voltage HEV Connector)

◆ 본사·공장 : TEL 070)7878-2400 / FAX 043)238-8599 ◆ 유라R&D센터 : TEL 070)7878-1000 / FAX : 030)780-6801 ◆ www.yuracorp.co.kr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3년 2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3. 1. 30~2. 6) · 일반 (2013. 1. 31~2. 4)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평생회비

(이사) △강병구 사회84
△강태현 GLP21 △권영철 차대05
△권오석 AMP61 △김기만 AMP63
△김명진 공대78 △김윤환 상대67
△김익환 GLP20 △김종원 공대74
△김지현 의대89 △나대진 법대67
△박무광 AIP43 △변 욱 HPM22
△송무현 AIP37 △송우길 공대84
△안창엽 AMP68 △어윤태 AMP55
△여상인 사대79 △오세빈 법대68
△유동근 사회92 △윤남근 법대77
△윤성준 농대88 △윤제용 공대80
△이동협 농대79 △이상은 공대76
△이승환 SGS11 △이영성 사회79
△이영재 공대69 △이주성 行院82
△이창수 공대54 △이태수 공대77
△이하우 AMP69 △이효원 문리69
△임대규 법대74 △전민숙 음대66
△정규홍 공대82 △정재원 SPAR5
△조찬호 GLP22 △조철호 법대91
△최기상 경영88 △최병인 의대68
△최승용 HPM9 △홍승기 인문75
△홍영희 공대54 △황덕순 생활72

(일반) △강대룡 공대78
△고승덕 법대76 △권대영 농대77
△김덕환 농대74 △김동의 농대52
△김명호 AMP32 △김병로 공대71
△김상민 농대90 △김수남 법대78
△김수학 문리53 △김순남 ACAD74
△김영성 차대95 △김영진 行院11
△김영춘 농대77 △김응술 경영81
△김재용 SGS28 △김재환 문리64
△김재환 의대98 △김정호 AIP47

△김종수 ASP23 △김종재 경영90
△김종채 공대55 △김주복 상대57
△김준희 사회06 △김중강 공대86
△김진후 사대74 △김창수 상대63
△김철민 경영84 △김충섭 법대77
△김학수 법대65 △김현오 생활07
△김형기 공대66 △김희태 ALP15
△나인구 공대53 △노주철 자연07
△문경섭 공대82 △문병성 사회74
△박경옥 環院07 △박경택 사회01
△박양해 농대64 △박영구 GLP24
△박영식 농대94 △박용은 사회87
△박종의 GLP18 △박현영 AIP43
△박홍목 농대56 △박화섭 공대89
△변은창 경영90 △서정겸 농대67
△서정욱 문리60 △석태수 사회73
△송창기 문리57 △신한풍 농대59
△심규선 사대80 △오경백 의대70
△오신남 공대60 △오현수 공대88
△우용제 사대76 △유철상 環院77
△윤성기 공대71 △윤희석 공대92
△이관희 농대55 △이광진 공대69
△이대공 법대60 △이범주 ALP14
△이복로 IFP1 △이상준 법대74
△이수형 AFP4 △이영호 ACPM8
△이원익 ACAD59 △이윤희 사회00
△이재현 AMPP13 △이정인 공대59
△이중식 AMP73 △이호선 수의92
△임교상 SGS25 △임홍재 인문71
△장영조 농대92 △장준우 의대87
△전경식 공대06 △전윤선 생활06
△정경란 음대80 △정성조 AFB12
△정환교 미대07 △조수나 공대07
△조은영 미대74 △조완석 차대90
△최경진 공대03 △최병목 사회78
△최석구 의대70 △최성환 농대62
△최우유 AFB12 △최우영 ALP12
△최원갑 공대55 △최종현 ALP16

△최희옥 의대51 △하성철 공대05
△하제철 의대08 △한기선 사대71
△한두호 농대85 △한순구 AFP10
△한중규 문리65 △홍사희 상대45
△홍영희 保院75 △홍정선 농대06
△황혜원 미대06

이 사

◆인문대 △오정택82 △윤재인80
△임운봉64 △전원배73
◆사회대 △구영수70 △문도선83
△박성희75 △박종국73 △이건희73
△이재덕73 △임 철75 △장원영72
△조현래73
◆자연대 △이현식73 △한창우75
◆간호대 △허 영74
◆경영대 △박훈기81 △서정희78
△신용삼73 △안수현77 △이윤호73
△진영근75
◆공대 △강상돈92 △강인권72
△강준우76 △고영주67 △구창용60
△김광일81 △김기준89 △김동진68
△김명석74 △김명호74 △김석주48
△김종술66 △김종식77 △김학세65
△김창준73 △남상률70 △남승윤82
△박상호76 △박세형73 △박의승73
△박진수70 △박찬백67 △박태훈78
△배무현72 △신성수79 △안기원70
△여인갑64 △윤용근81 △이문희59
△이성원58 △이영길74 △이운형65
△이원도59 △이창갑46 △이화현74
△이희달70 △임민수66 △전상백53
△정명식50 △정조섭56 △최규현90
△최재열69
◆농대 △강대규79 △강양재78
△김영진53 △김일봉68 △김일종69
△김진석69 △박창언80 △석준호55

△양재승70 △연장식84 △오봉국48
△윤상철80 △윤재수63 △이병목64
△임형백89
◆문리대 △고영소56 △김규상57
△김덕창59 △김두희52 △김승국56
△남광성61 △박범진60 △방효선51
△송대성69 △신상우64 △오재희53
△윤석현46 △이광찬58 △이대승66
△이영준67 △이형구59 △차영구73
△차홍봉62 △최경락71 △최서영54
△홍종웅65
◆미대 △김연수76 △박재호59
△이진민83
◆법대 △강 훈72 △강동세77
△강민수65 △강신원72 △고광우53
△곽현수72 △권연상58 △김도연58
△김득환79 △김상균77 △김우진83
△김응열59 △김의재56 △김정일60
△김종준86 △김창균57 △김현순54
△민병권83 △박무용64 △박부찬56
△박상우75 △박용상63 △박원진51
△박철근55 △서동희80 △심명수63
△안용득62 △오복동57 △유상범84
△유재선63 △윤제열50 △윤준원67
△이광진77 △이대경77 △이석현71
△이세복61 △이세훈55 △이영범59
△이영준57 △이재원77 △이종순57
△장병규53 △장부용59 △장창호63
△장규영57 △장덕장59 △정문화59
△정은구58 △정해주63 △제차룡60
△최석문86 △최영도57 △최재훈49
△홍세철80 △황보중74 △황봉환73
△황영구75
◆사대 △구영주72 △김병무64
△김수형61 △김진규58 △변범식86
△성기훈71 △신차균68 △윤익모62
△이기영68 △이진구71 △정준섭61
△최병주56 △최준병60 △홍철근70

△황성욱60
◆상대 △권영정72 △김대중66
△김부규56 △김영환54 △김중석65
△김창수66 △김형만52 △민형동71
△신평재57 △유원영57 △유진무62
△이관규61 △이구수57 △이용진68
△이하룡69 △이형철54 △장민화56
△장명섭49 △장무현45 △조덕찬53
△조종현62 △진영목70 △최도성70
△최동건70 △최명규46 △최부완54
◆생활대 △박복순70
◆수의대 △권순현76 △김창윤53
△방극승64 △신도균81
◆약대 △강석진55 △권경근56
△김 유60 △맹호영81 △박시우69
△박종길71 △신현학56 △우재성71
△윤승로56 △이순석61 △장용택55
△조영준69 △진 강56
◆의대 △강진영67 △김근우61
△김동은52 △김병찬53 △김소연74
△김진조45 △김환규78 △박훈영71
△선덕영49 △송희승53 △양승열51
△양승오75 △유병훈67 △유재란82
△이수철71 △장돈식56 △정규병65
△최훈동72 △한중수71 △함의근52
△홍영수66 △홍영식61
◆치대 △구창서58 △김경애57
△김수남59 △김채종68 △류홍렬77
△민병덕64 △박상균66 △박용환78
△박행운56 △백순지63 △서영수67
△성훈경59 △손 근71 △신일규65
△양원식57 △양철호87 △양희일56
△유재석70 △윤임도72 △윤철민82
△이상표77 △이한무65 △장명우83
△정광현58 △정상일91 △정용호65
△정재영70 △정종선57 △조광현70
◆대학원 △가순일94 △김문한79
△이시묵52 △이효수84 △임유택87



1등 결혼하는 중매회사

행복출발 & The One noble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대한민국 1등 결혼 1%를 위한 Honors 결혼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행복출발 & 더원노블

美 명문대 외턴 스쿨(MBA) 경영진
15년 노하우의 노블레스 결혼정보
서울대학교 동문과 자녀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무료
상담

1588-3883
02) 2023-6166

신뢰의 상징

세계최고 MBA 출신들

완벽한 맞춤형

전문특화 결혼정보

압도적인 성혼율

15년 노하우, 특허매칭

100% 신원인증

글로벌 검증시스템

1등결혼 실현

고객행복브랜드 대상

- △정병희⁵²
◆경대원 △전도진⁷⁰
◆보대원 △김진한⁸⁷ △이규한⁶³
◆사대원 △이원성⁶⁷ △정경식⁶³
◆행대원 △김상영⁶⁵ △문화갑⁶⁶
△이시경⁷⁹
◆현대원 △민봉기⁷⁷
◆AMP △강봉희³⁶ △김기웅²⁸
△김장환¹⁵ △김중현⁴⁹ △김혜삼⁵¹
△손창수⁴¹ △송문호³⁸ △신성우³²
△신용문⁶⁸ △우영태⁴⁰ △이규식⁵⁴
△정석재⁶¹ △최호경²⁸ △황종갑⁵⁶
◆AIP △강병영²⁰ △고희수²⁵
△김인수¹⁰ △위재곤²⁷ △유길상⁹
△조성환²¹
◆ACAD △강남주⁵⁶ △곽기현⁷⁰
△김종웅³⁹ △이왕철³³ △조주태¹⁴
◆ABP △김현식²⁰
◆SGS △이창섭⁷ △정휴병¹⁵
◆APC △함준조²
◆HPM △김 웅⁶ △방금석²
△사재훈²⁰ △양통권²³ △이재우²³
△조경순¹²
◆AIC △김현식²
◆ACPM △김창환⁵ △정원배³
△최정규³ △하대정⁵
◆FIP △이재병¹ △황귀봉¹
◆GLP △김원철¹⁵ △김창송²¹
△유영덕⁷ △이원욱¹¹ △최진철¹⁸
◆ALP △김재현²
◆SPARC △홍기남⁵ △황용규¹⁵

일 반

- ◆인문대 △김민지⁰¹ △박창수⁰⁵
△변성수⁸⁴ △황상선⁸⁴
◆사회대 △김성은⁰⁶ △김호일⁸¹
△박근원⁰³ △배세환⁹⁶ △서병일⁸⁷
△신기덕⁷⁴ △안백훈⁸¹ △정호정⁰⁵
△조동환⁸²
◆자연대 △김대환⁰² △김수정⁰²
△노동진⁸⁹ △문송기⁰⁰ △박영일⁰²
△박용진⁰⁵ △양승락⁰² △조성현⁰⁸
△조은비⁰⁷ △채현우⁰⁷ △최철호⁸³
△현민아⁰²
◆간호대 △고혜명⁶⁵ △염윤정⁰⁶
△이인옥⁷⁴ △최진아⁰⁷

- ◆경영대 △김연경⁷⁹ △김태암⁸²
△김태현⁰⁶ △박찬호⁸³ △신윤철⁷⁰
△오정규⁷⁷ △이난샘⁹⁹ △이정민⁰⁴
△이준구⁹¹ △임성균⁷⁷ △전선규⁷⁸
△최용일⁸⁹
◆공대 △곽창환⁰¹ △권두섭⁵⁷
△김경원⁸³ △김남길⁶¹ △김법규⁰²
△김세준⁹⁴ △김영권⁰¹ △김영상⁰⁵
△김원태⁵⁶ △김형모⁵⁴ △김형호⁹⁸
△문종규⁵⁸ △박국진⁰⁵ △박노열⁰⁶
△박상철⁶⁶ △박원준⁴⁹ △박유나⁰⁵
△박인오⁸³ △박종로⁰¹ △박주영⁰³
△배광준⁵⁹ △서두석⁷¹ △서민우⁰⁰
△성준호⁰⁴ △송병륜⁰⁵ △송선후⁵⁷
△송주인⁵¹ △신동엽⁰⁰ △신현욱⁹²
△안석기⁰³ △양승철⁹⁹ △오열근⁵⁷
△유태용⁵⁰ △이경화⁰² △이기영⁰³
△이병무⁶¹ △이봉희⁷³ △이상선⁸⁴
△이세용⁸² △이재남⁵⁷ △이재준⁰³
△이정훈⁰⁶ △이지훈⁰⁴ △이정룡⁶¹
△이태중⁷⁷ △임채원⁰⁴ △장재호⁹⁶
△전병규⁰¹ △전연욱⁵⁷ △정진경⁴⁸
△조민욱⁰² △조장하⁵⁷ △조형태⁰⁰
△최 근⁰² △최국봉⁴⁷ △추성원⁰⁶
△현 철⁰⁵ △홍성재⁵² △홍순일⁵³
◆농대 △강남훈⁷⁷ △강진표⁵⁵
△금지현⁰⁶ △김병윤⁵⁵ △김종언⁹¹
△노재홍⁵⁶ △박승걸⁵³ △박재복⁷⁰
△박종대⁷⁶ △박종효⁵⁸ △박치석⁶³
△박홍준⁸³ △신일선⁵⁸ △신종복⁵⁴
△오근배⁵⁶ △오무영⁵⁵ △오충용⁶⁰
△우무일⁶⁴ △유기원⁵³ △유기형⁵³
△유석형⁵⁸ △유석환⁶⁵ △유세현⁷⁹
△유형준⁰³ △윤상렬⁵⁷ △이병하⁵⁵
△이병현⁵⁹ △이세표⁵⁵ △이종구⁵³
△이종렬⁵⁰ △이태영⁵⁴ △이현우⁵¹
△이형익⁶⁴ △임무상⁵⁹ △정민현⁵⁵
△정영관⁵⁶ △정태원⁵⁷ △최현숙⁶⁵
△홍순일⁶³
◆문리대 △권태승⁵⁵ △김경환⁶⁵
△김순섭⁵⁷ △김순태⁵⁶ △김홍중⁶¹
△도태균⁶³ △류수현⁴⁸ △류지웅⁵¹
△박애주⁴⁷ △박용오⁷⁰ △박희봉⁴⁸
△방재환⁶⁶ △서일환⁵⁵ △성명제⁵⁴
△송인찬⁵⁹ △안사균⁴⁷ △양철주⁵⁹
△온준철⁶⁴ △원인기⁶⁶ △유정열⁵²
△이달형⁵⁴ △이도영⁵⁶ △이수호⁴⁹

- △이양길⁶⁰ △이정주⁵⁵ △이진택⁴⁷
△장희순⁵⁰ △정 탄⁶⁵ △정지식⁶¹
△정태훈⁵³ △정한택⁴⁶ △정해일⁵⁸
△주석순⁴⁸ △차기백⁴⁶ △차호인⁶¹
△최성규⁶⁰ △최순복⁵⁵ △홍혜숙⁶⁸
◆미대 △김경수⁵⁶ △김경숙⁶³
△김민정⁰¹ △김익수⁵⁸ △박연도⁵⁶
△손원갑⁶⁵ △신용태⁵⁹ △정영조⁵⁵
△최진주⁸¹
◆법대 △강형준⁵⁴ △고문승⁵⁶
△김광현⁵⁴ △김남진⁵¹ △김세중⁸²
△김승중⁶⁸ △김용인⁶⁹ △김준봉⁴⁴
△김희수⁸⁰ △노승행⁵⁸ △문택상⁵⁰
△박병연⁶⁷ △박영순⁰⁷ △박원출⁶⁷
△박진우⁹² △박형섭⁸¹ △방영민⁷⁸
△백 린⁵⁹ △백대현⁵⁰ △신성국⁷³
△신현욱⁶⁶ △신희기⁸² △윤금중⁴⁸
△이강수⁵³ △이경환⁰⁴ △이동렬⁶⁸
△이성갑⁵⁵ △이용관⁹⁹ △이재인⁹³
△이제영⁸³ △이종신⁶³ △이채주⁵³
△임순목⁵³ △정기용⁸⁹ △정동현⁹⁹
△정영복⁸⁴ △조봉균⁵⁸ △조용한⁷⁹
△최강섭⁷⁸ △최귀인⁵⁶ △최삼목⁸²
△최태진⁰⁶ △추영일⁶¹ △홍기인⁵⁵
△황도연⁵² △황성일⁵⁶ △황운영⁵⁵
◆사대 △강양희⁵⁷ △김경자⁶³
△김남훈⁷³ △김다림⁹⁵ △김삼옥⁴⁷
△김성태⁵⁴ △김종석⁵⁵ △김태영⁵⁶
△박성수⁶¹ △변영희⁶⁶ △안광화⁶³
△우명길⁶⁸ △유기동⁶⁵ △유희연⁵⁹
△윤영준⁸⁴ △윤종상⁵² △이길오⁷³
△이대규⁵⁷ △이득우⁷⁴ △이상옥⁵¹
△이성목⁶⁷ △이성진⁵³ △이용우⁵⁵
△이용현⁵³ △이재근⁴³ △이재선⁰¹
△이창호⁷¹ △이채규⁶⁶ △이태웅⁷¹
△이환배⁵⁴ △정두현⁶⁰ △정하경⁸⁰
△조남진⁵⁸ △조철원⁵⁵ △진원우⁷²
△최길순⁴⁹ △최병록⁴⁹ △최안기⁷⁰
△최정림⁶² △홍운표⁵⁴ △황세열⁴⁹
◆상대 △권영욱⁵⁴ △김범수⁵⁷
△김상은⁵³ △김선길⁴⁵ △김영하⁶¹
△김장현⁵⁴ △김진호⁵⁰ △김진화⁵⁸
△문무상⁵⁴ △문성환⁷¹ △박복양⁴⁴
△박효민⁶⁴ △서재진⁶⁰ △신후성⁵⁵
△안기봉⁵⁵ △안영목⁵⁷ △오우현⁵⁵
△유방연⁶¹ △윤상규⁵⁷ △윤영원⁵⁵
△이동훈⁵⁰ △이영상⁵¹ △이필원⁶⁰

- △이희준⁴⁹ △전완식⁶⁰ △전인홍⁵⁴
△정상철⁶⁰ △채광옥⁶³ △최동호⁶⁵
△최처탁⁵⁴ △한익수⁵³ △한희영⁴⁹
◆생활대 △김명경⁸³ △손상희⁷⁷
△신은철⁷³ △이정자⁷⁷ △최윤정⁸⁴
△김민정⁰⁵ △김보람⁹⁸ △안은정⁰³
◆수의대 △권순기⁵⁷ △김영무⁶⁰
△박기환⁴⁹ △이형우⁵¹ △정자영⁸⁴
△정태규⁵⁶ △조충호⁴⁹
◆약대 △김규상⁵⁶ △강삼식⁶⁵
△김광우⁶⁶ △김규형⁵³ △김양오⁶⁰
△김영길⁶¹ △김정숙⁶⁹ △김정화⁵⁷
△김태환⁰⁷ △문창기⁵² △박창서⁶⁷
△배은상⁵⁶ △안양찬⁵³ △오병무⁶²
△이석구⁶² △이재현⁴⁵ △이재현⁷⁷
△이해정⁴⁶ △이홍래⁵² △임준영⁰⁸
△정만익⁴⁷ △정순간⁵⁸ △정은희⁸²
◆음대 △강미중⁶⁹ △김태정⁸⁶
△김현이⁸² △박노경⁵⁴ △송영옥⁸⁰
△심은주⁶⁸ △안성준⁶⁵ △이기원⁴⁹
△임정선⁵⁷ △장진선⁰⁶ △최예니⁰⁷
△한혜자⁶¹ △함천혜⁶² △황영기⁸²
◆의대 △고종현⁷⁴ △국형철⁷⁶
△김범용⁵³ △김우영⁴³ △박용수⁸⁵
△박재홍⁸⁰ △박현승⁷⁷ △변창세⁶⁹
△성낙응⁴⁴ △신명희⁵⁶ △양솔문⁰⁰
△이상림⁴⁶ △이승남⁷⁶ △이승원⁹⁷
△이정균⁵⁶ △이학중⁵² △장선택⁴⁶
△정진우⁴⁵ △채희복⁸⁵ △최덕영⁵⁸
△최충신⁶¹ △홍순원⁴⁹ △황순목⁷²
◆치대 △강호경⁵³ △구원우⁵⁴
△김기수⁷⁸ △김창희⁶² △여인호⁷⁹
△오기환⁵³ △윤경호⁵⁸ △이교인⁶⁵
△이상대⁷⁰ △이영애⁵⁸ △전영섭⁶⁰
△조일제⁷⁷ △조한준⁵³ △차만희⁵⁷
△최낙준⁷² △하국봉⁸¹ △한성희⁹²
◆대학원 △고진석⁹⁹ △김재웅⁷²
△김중수⁷⁹ △최병희⁶³
◆경대원 △고창석⁷¹
◆보대원 △김남주⁶⁶ △박전봉⁷²
△서은하⁹⁶ △이민희⁷⁴
◆행대원 △김원영⁷⁰ △박정훈⁵⁹
△심윤수⁸¹ △허성두⁷¹
◆현대원 △강덕원⁸⁵ △나권희⁹⁹
△윤종식⁸⁹
◆AMP △강만희⁵¹ △김응열²⁵
△김치곤⁷ △김택동⁶⁸ △문만수³²

- △박영근¹⁷ △박중서¹¹ △백문현²⁵
△백복인⁷¹ △성백영⁶⁴ △심갑보³
△안치한³¹ △유상욱³⁹ △은민수⁶⁷
△이상락⁷³ △이영태³⁵ △이원길²⁶
△이정희⁶⁴ △이준환⁶⁹ △정일기³⁵
△최경희³⁸ △한형수⁴⁷
◆AIP △김성화⁴⁶ △김윤필³²
△백경흠²³ △신길웅¹⁰ △왕원돈³¹
△이건구²⁴ △이재서¹¹ △정일재³
△황중연³⁰
◆ACAD △박찬국⁵⁴ △오필기²
△이경환⁶⁴ △이교웅⁴⁰ △이윤희¹⁸
△이은홍⁴⁸ △이정규²² △이필우³³
△이학동⁴⁴ △조남조¹⁵ △진인권²⁸
◆ABP △박인규¹⁰ △이수남³⁹
◆SGS △김용환¹⁶ △장태복⁴
◆CHCN △이서현⁵
◆APC △안병철⁵ △한길호⁴
◆HPM △김일용⁶ △서관석²
△신철준²⁸ △이난영²⁶ △하병철²⁸
△홍의표⁹
◆AMPP △남석희⁵
◆AIC △구자영¹⁰ △성기혁¹³
△안희주²⁶ △장인영³²
◆AFB △김호운⁴ △정찬근¹⁰
◆AMPFRI △김상철⁴ △송희순²⁰
△이종무¹¹ △장석철⁵ △정관희⁶
◆ACPM △이동찬⁸
◆GLP △공한철¹⁰ △박옥만¹⁸
△이상복²⁵ △이정우¹³
◆ALP △박영숙¹⁶ △송해은¹⁴
◆SPARC △최광종⁶
◆AFP △송효순⁷ △정현량⁷
△조동일⁸
◆IFP △심명석³
◆BCP △최순규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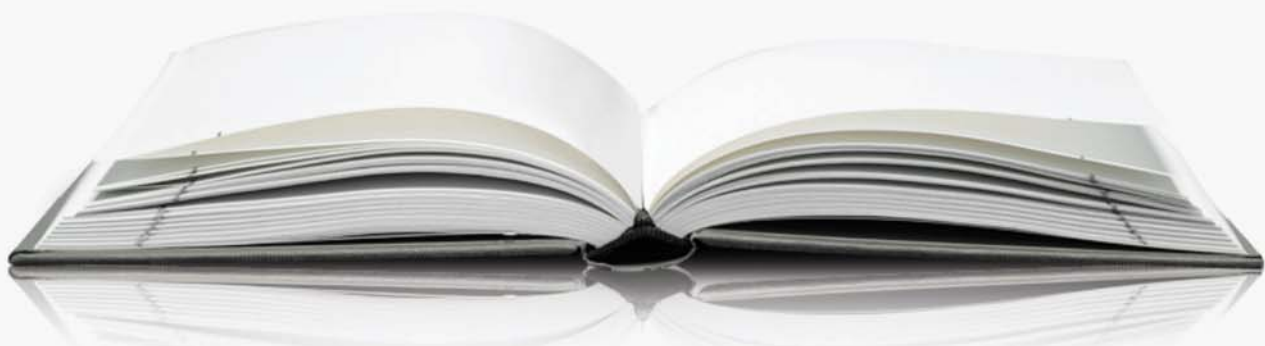
2013년 2월	
연 회 비	99,120,000
평생회비	49,930,000
입 회 비	30,000
계	149,080,000
2013년 누계	284,810,000



2012 한국표준협회 선정
대형서점부분 1위

BANDI & LUNI'S
BOOKSTORE

내 꿈이 펼쳐지다...



코엑스점 02)6002-6002 / 센트럴시티점 02)530-0700 / 종로타워점 02)2198-3000 / 사당역점 02)3487-4747 / 신림역점 02)888-1330
목동점 02)2163-2251 / 롯데스타시티점 02)2218-3050 / 롯데올산점 052)257-5110 / 서강점 02)703-6638 / 일산킨텍스점 031)822-3870
롯데아울렛파주점 031)960-2800 /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920 / 인터넷 서점 1577-4030



대한민국 휴대폰처럼

편의점에도 세계적인 브랜드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세계 거리 곳곳마다 자리잡은 편의점

그 편의점이 대한민국 브랜드라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우리의 꿈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한분, 한분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생활문화공간으로 새로워진 CU-

대한민국 1등 편의점을 넘어, 세계적인 편의점으로

더 높이 도약하는 CU의 도전을 응원해주십시오

당신을 위한 편의점





OPEN MY STORY!

이야기 한다는 것 이야기 듣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더 행복해질 수 있기에
이제 삼성이 생각의 문을 활짝 엽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 곳



SAMSUNG BLOG & TWITTER & FACEBOOK

삼성블로그(blog.samsung.com) 트위터(twitter.com/samsung) FACEBOOK(www.facebook.com/samsung)

